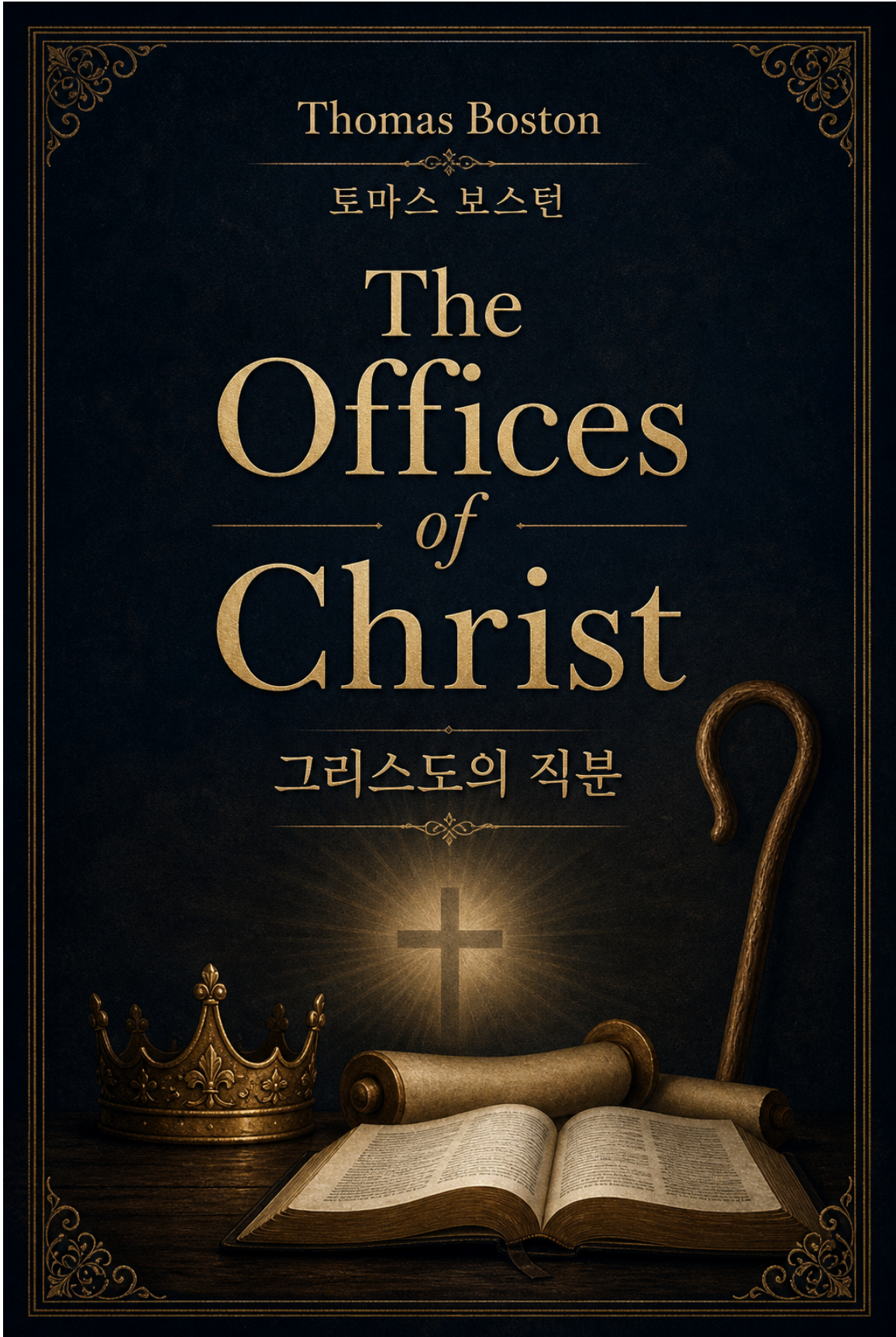


Thomas Boston

토마스 보스턴

The
Offic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Ad Fontes Edition)

원제: The Offices of Christ, Thomas Boston, 1753.

발행처: Ad Fontes (adfontes.kr)

발행일: 2026 년 5 월 5 일

저작권 및 판권 안내

본 도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원전을 바탕으로 Ad Fontes 가 현대적 AI 기술과 전문 신학자의 감수를 결합하여 새롭게 편집·번역한 독자적인 판본입니다.

본 판본의 번역 및 편집 저작권은 Ad Fontes 에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제, 공유 및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번역 및 편집: Ad Fontes 편집부

『그리스도의 직분 (The Offices of Christ)』은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쳐 확립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을 심도 있게 해설한 개혁주의 신학의 영적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 보스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으며, 그것이 신자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치밀한 성경적 논증과 풍성한 목회적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구속사의 장엄한 흐름 속에서 그분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게 돕는 탁월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의 죄책을 씻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며, '왕'으로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영적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세밀하게 강해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충분한 사역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와 죄책감, 그리고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벽한 구원자이자 보호자가 되시는지 보여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견고한 위로를 얻는 깊은 유익을 제공합니다.

저자 소개: 토마스 보스턴 (Thomas Boston, 1676-1732)

토마스 보스턴은 18 세기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장로교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개혁주의 언약 신학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수호한 인물입니다. 『인간 본성의 4 중 상태(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등의 저서로 널리 알려진 그는, 매로우 논쟁(Marrow Controversy)의 중심에서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철저한 신학적 엄밀성과 성도를 향한 따뜻한 목회적 감수성을 겸비했던 그의 메시지는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의 영적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참된 경건의 원천을 찾는 이들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그리스도의 직분 일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의 왕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개요

스가랴 6:13 —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이심과, 그가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한 위격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야만 했던 필연성을 보인 바, 이제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수행하시는 직분들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장 11 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두 개의 관을 씌우는 모형적 행위가 나온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예표하고 설명하는 데 적용된다. 12 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순’(branch)이라는 은유로 예언되는데, 이는 그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 세상에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한다. 본문이 속한 구절은 그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수행하실 세 가지 직분을 제시한다.

첫째, 선지자 직분이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뜻이며, 성전은 그 교회의 모형이다. 선지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일이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또한 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계시하신 분이다.

둘째, 제사장 직분이다.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 화평을 얻어내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일을 주관하는 직분이다.

셋째, 왕 직분이다. 그에게는 보좌가 있는데, 이는 그의 왕 직분을 나타낸다. 그는 보좌 위에 계신 제사장으로서, 이는 그의 고난에 대한 보상이자 그의 낮아지심과 대속의 고난을 통해 얻으신 고귀한 지위를 뜻한다. 그는 이름뿐인 왕이나 활동하지 않는 군주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 실제로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 모든 직분의 영광이 그에게서 집약되며, 그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들을 굳게 지키고 수행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교리의 기초를 제공한다.

교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비하와 승귀의 상태 모두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 교리를 강론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보이고자 한다.

-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직분들의 실재성
- II.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가 이 직분들을 수행하셔야만 했던 필연성
- III. 그가 언제 이 직분들을 수행하셨는가
- IV.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론을 도출하겠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직분들의 실재성

나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직분들의 진실성, 곧 실재성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실제로 이 직분들을 부여받으셨으며,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또한 그는 이 직분들을 수행하시는데, 이는 이 직분들에 속한 기능들을 이행하심을 뜻한다. 이는 다음의 사실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 명백한 성경의 증거

(1) 그가 이 직분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는 선지자이시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서,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야 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행 3:22-23)고 하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했다. 이 말씀은 권위와 능력으로 가르치시어, 일찍이 어떤 사람도 것처럼 가르친 적이 없었던 그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들어맞을 수 없다.

그는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5 장 6 절은 그를 명시적으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칭한다. 히브리서의 여러 다른 곳에서도 그의 제사장직의 실재와 본질, 목적이 상세히 설명된다.

그는 왕이다. 시편 2 편 6 절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한다. 시편 110 편 2 절은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한다. 그는 왕권의 모든 표지를 지니고 계신다. 그의 직분에 대한 즉위식, 곧 기름부음 의식이 시편 2 편 6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기름부었다”라고 말한다. 그는 관(시 21:3)과 칼(시 45:3)과 규(시 45:6)를 가지셨고, 백성(눅 1:33, 요 1:49)을 두셨다.

(2) 그가 이 직분들을 수행하셨다는 증거.

그는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과 지복에 이르는 길이 되시고, 그의 말씀은 계시된 모든 진리의 요체이자 실체인 진리가 되시며, 그의 영은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살리고 보존하시는 생명이 되신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성화와 구원함이 되셨으니,” 선지자로서 지혜가, 제사장으로서 의로움이, 왕으로서 성화와 구원함이 되셨다.

2) 우리는 그의 이름인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서도 이를 배울 수 있다. 이 이름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 이전 강론에서 말했듯이, 율법 아래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부음을 받곤 했다. 곧 선지자(왕상 19:16), 아론과 같은 제사장(출 29:7),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며, 그는 이 직분들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사야 61 장 1 절에서 그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그는 선지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사장으로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왕으로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처럼 물질적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시 45:7)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름부음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그가 중보 사역과 이 직분들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세워지셨다는 것. 성부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요 10:36).

(2) 그의 인성이 이 직분들에 합당한 은사들과 자격들로 온전히 채워졌다는 것. 성령은 그에게 한량없이(not by measure) 주어졌다(사 11:1-2 등). 이는 단지 충분함의 충만이 아니라 풍성함의 충만이며, 그릇의 충만이 아니라 샘의 충만이다. 이는 그의 백성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요 1:16).

그는 자신의 세례(마 3:17)와 변화산 사건(마 17:5), 그리고 승귀(행 2:36)를 통해 이 직분들에 엄숙히 취임하셨다. 또한 그는 히브리서 5 장 4-5 절에 따라 이 직분들에 엄숙히 부르심을 받으셨다.

“아무도 스스로 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으니,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를 높이셨다.”

II.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들을 수행하셔야 했던 필연성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의 구속 사역을 맡으신 것은 어떠한 강요나 강압의 그림자도 없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향한 크신 친절함에서 기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로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가 이 세 직분을 모두 수행하시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이는 다음 몇 가지를 고찰할 때 분명해진다.

1.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 곧 무지와 죄책과 속박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셔야만 했다. 우리는 죄책에 덮여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속죄를

이루어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셔야만 했다. 우리는 죄와 사탄에게 속박되어 스스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셔야만 했다. 선지자로서 그는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공로를 가져오시며, 왕으로서 능력을 부여하신다.

2. 택함 받은 자들이 참여하게 될 구원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완전히 눈멀고 무지하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구원은 그들에게 반드시 계시되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일들을 계시하고 가르치시는 선지자가 되셔야 했다. 구원은 연약하여 어떤 영적 과업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얻어져야 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를 위해 생명과 영원한 구속을 사시는 제사장이 되셔야 했다. 또한 구원은 반드시 그의 영의 능력으로 적용되어야 했다. 죄인들이 구원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셔야 했다. 노예들은 스스로 몸값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값이 치러지기 전은 물론이고 치러진 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종노릇에서 벗어나기를 원치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이 세 직분을 모두 갖추셔야만 했다.

3.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 그는 두 당사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양측과 교섭하셔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으로 진노하셨으므로, 그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 율법과 정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용서를 중재하셔야 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는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계획을 계시하는 분이 되셔야 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꺼렸으므로,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그의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셔야 했다. 그는 언약의 유익들을 값을 치러 사시고, 계시하며, 집행하셔야만 했다.

4. 회심의 사역을 생각해보라. 영혼은 선지자의 깨우침으로 조명을 받아 자신의 비참함과 그에 합당한 치유책을 보아야 한다. 자신의 비참함을 본 영혼은 제사장의 피가 양심에 부러지지 않으면 절망에 빠질 것이다. 또한 의지는 왕의 정복하는 칼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의 일상적 필요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매일 무언가에 대해 어둠 속에 있지 않은가? 만일 위대한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인도를 주시러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는가? 우리는 매일 새로운 죄책을 쌓고 있다. 만일 영원한 공로와 항상 곁에 계시는 보혜사가 없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항상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원수들을 우리 발아래 굴복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지옥의 군대를 돌파할 수 있겠는가?

6.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지팡이인 약속들을 생각해보라. 약속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분들은 이 모든 약속의 원천이자 샘이다. 눈멀고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조명과 인도와 지침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가?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서 흘러나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사 55:4). 두려움과 죄책과 죄로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용서와 화목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약속들은 그의 제사장 직분에서 나온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해방의 약속은 그의 왕 직분에서 나온다.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며, 모두 그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고, 그에게서 비롯되어 그를 통해 흘러나온다.

III. 이제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직분들을 수행하셨는지 살펴보자.

그는 모든 시대에 교회의 구원자이셨으므로, 교회의 모든 시대에 이 직분들을 수행하셨다. 구약 시대에 그는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이셨다. 요한복음 1:18은 이렇게 증언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첫 복음의 약속부터 성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모든 계시를 통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셨다. 그는 구원에 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지성을 주신다. 그는 광야 교회에도 선지자이셨다. 출애굽기 23 장 20 절은 말한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3 장 19 절에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읽는다. 이는 노아의 사역을 통해 옛 세상의 죄인들에게 선포하셨음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있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장차 받으실 고난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셨다. 이에 대한 놀라운 예가 스가랴 1 장 12 절에 나온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게 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그는 또한 그들의 왕, 곧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휘하셨다. 그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부르짖는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으며, 그들의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성육신 이후, 비하와 승귀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이 직분들을 수행하셨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 장 8-9 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상태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는 지상에 계실 때 선지자였으며, 지금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며, 오늘날부터 세상 끝 날까지 모든 구원의 지식은 그를 통해 전달된다. 그는 비하의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승귀의 상태에서도 제사장이시다. 그는 지상에서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리셨으므로 그곳에서 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5 장 2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히 1:3) 후에야 하늘에 오르셨으며, 영원히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 계신다(히 7:25).

그는 비하의 상태에서도 왕이셨다. 그는 왕으로 태어나셨고(마 2:2), 자신에 관한 옛 예언을 성취하시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마 21:5), 빌라도 앞에서는 스스로 왕임을

시인하셨다(마 27:11).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로 영광의 주님이셨다(고전 2:8). 이제 그는 자신의 보좌로 높이 오르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불리시며, 모든 원수가 그의 발판이 되고 모든 그의 백성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이 세 직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수행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그는 선지자로서, 구원 얻는 지식을 아는 데 필요한 기름 부음은 주시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교회에 율법을 주실 수는 있다. 또한 왕의 직분을 심판자로서 행사하여 원수들에게 무거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참된 신자들의 특권인 순종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이 직분들 중 하나를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수행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모든 직분을 다 수행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진리이다. 이런 점에서 세 직분은 구별될지언정 분리되지는 않는다. 선지자이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는 누구나, 제사장이신 그의 피로 하나님께 구속받고, 왕이신 그의 능력에 굴복하여 기꺼이 그의 백성이 된다. 또한 제사장이신 그를 통해 죄를 속죄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선지자이신 그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능력의 날에 왕이신 그의 기꺼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추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는 이 모든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기에 합당하시며, 서로 방해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동시에 수행하신다. 실로 그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니, 여러 모험적 인물에게 흠어져 있던 모든 영광이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이 제사장과 왕을 겸한 것이 영광스럽고 다윗이 왕과 선지자를 겸한 것이 영광스러웠다면, 우리의 거룩한 중보자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실제로 소유하시고, 지상에서 그 직분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맡았던 그 어떤 인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온전한 범위에서 그 직분들을 수행하시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2.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전하고 합당한 구원자이신지 알기 바란다. 비참한 죄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그리스도의 이 직분들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오, 죄인아, 그대가

영적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가? 그분에게서 지식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시며, 참되신 분을 알도록 그대에게 지성을 주실 수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수 있다. 그대가 죄책과 정죄 아래, 지옥으로 끌어내릴 듯한 죄에 짓눌려 있는가? 제사장이신 그분 안에 그대의 죄책을 제거할 의가 있다. 그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다. 그는 죄와 진노에서 구원하신다. 그대가 죄와 사탄의 노예인가?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왕이시다. 그는 그대 안에서 죄의 지배를 깨뜨리고, 족쇄를 끊어 주며, 모든 영적 원수를 굴복시키실 수 있다.

3.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려면 그의 모든 직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가 지옥과 진노에서 자신들을 구해 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지식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의 그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으며 그의 법과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그가 말씀하신 것들은 행하지 않는가? 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이며! 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자신이 행한 의로써 그분의 의를 대체하려는 자들의 미련함이며! 오,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멸하여 그의 왕적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법과 통치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광기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영토에서 자유롭게 다스리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권위를 침해하며 그의 법에 반하고 모순되는 법을 만드는 세상의 군주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4.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직분 안에서 영접해야 한다. 선지자이신 그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는 버려야 한다. 제사장이신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피로 씻김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처럼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께 의를 얻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는 율법에서 난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기 위함이다. 또한 주권자이신 주님이요 왕이신 그에게 인도와 통치를 받기 위해, 그의 모든 법과 계명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5. 이 위대한 구원자를, 그가 부여받으셨고 중보자로서 타락한 인류의 유익을 위해 행사하시는 모든 직분에서 힘입으라. 여러분은 이 모든 직분에서 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지혜 없고 어리석기에, 여러분을 이끌고 지도할 그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에, 구원하는 지식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죄책 아래 정죄받은 죄인이요, 날마다 죄를 짓는 자들이기에, 용서가, 아니 계속되는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연약하여 영적 원수들과 싸울 힘이 없기에, 원수들 앞에 굳건히 서게 해 줄 만왕의 왕이신 그의 막강한 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알고 경건에 힘쓰다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임을 깨닫고, 이처럼 완전하고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구원자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매일 그의 모든 영광스러운 직분을 힘입으라. 그를 여러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삼아 그에게 역할을 맡김으로써 그를 존귀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행 3:22 —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다 들으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부여받아 실제로 수행하심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이 직분들을 각각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방금 읽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그의 선지자 직분부터 시작하겠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음을 보여준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 18:15) 하였다. 베드로는 이 탁월한 선지자가 이제 오셨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며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라고 권면한다.

이 말씀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다.

1.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묘사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서 그리스도는 몇 가지 방식으로 묘사된다.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칭호인 ‘선지자’로 묘사된다. 그는 모든 선지자의 으뜸이시며, 사도들이 칭한 대로 ‘위대한 목자’ 또는 ‘목자장’이시다. 선지자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율법을 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장래 일을 예언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서 단독적이고 탁월한 방식으로 성취된다.

둘째, 그는 그의 모형(type)으로 묘사된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참으로 한낱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행한 기적 면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셨다.

모세는 이 태양에 대한 별에 불과했고, 그의 모든 빛과 지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별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모든 빛을 의의 태양으로부터 빌려왔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예를 들어 모세와 그리스도는 모두 유아기에 박해를 받았고, 모세는 현세의 애굽에서 구원자였으나 그리스도는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자였는데, 전자는 후자의 모형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세와 닮았다.

(1)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다. 출애굽기 33 장 11 절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사를 통하거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꿈이나 환상으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친밀하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모세와 닮았을 뿐 아니라 그를 훨씬 능가하셨다. 그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친밀하셨고(잠 8:30),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요 1:1), 그의 품 안에 거하시며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아셨다.

(2) 사역의 탁월함과 그 직무 수행에서의 위대한 신실함이다. 히브리서 3 장 2 절은 “이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한다. 모세의 직무가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온 집과 그 모든 섬김에 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직무는 복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온 교회와 그 모든 섬김에 미친다. 모세가 자신이 전한 것을 내어주도록 하나님께 임명받았듯이, 그리스도 또한 자신이 제정할 것을 제정하고 폐지할 것을 폐지하도록 성부께 임명받으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모든 문제에 신실하여 계시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듯이, 그리스도 역시 자신을 임명하신 성부께 신실하셨다. 실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셨음을 사도는 히브리서 3 장 3-4 절에서 보여준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시라.”

(3)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 선지자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기에(신 18:16-17),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그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 사람과 관계하신다.

(4) 모세가 백성이 온전히 확신하도록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확증했듯이,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역시 이 점에서 모세와 같다. 그는 세상이 보는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전파한 교리를 확증하고 자신의 위격과 사명의 신성을 입증하셨다.

셋째,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나신 그의 혈통으로 묘사된다. “너희 형제 중에서 … 세울 선지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9 장 5 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셨고, 히브리서 7 장 14 절에 따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혈통으로 그 백성과 민족에게 큰 영예와 존엄을 부여하셨다.

2. 이 선지자에게 복종하라는 엄격한 명령이 주어진다.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다 들으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한다. 이 복종은 오직 이 선지자에게만, 보편적으로, 그리고 큰 형벌의 경고 아래 요구된다.

(1) 이 복종은 오직 그에게만 드러져야 한다. 본문의 ‘그가’라는 말은 다른 모든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그의 사자들과 사역자들의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지만(히 13:17),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명령하고 금하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2) 이 복종은 보편적으로 드러져야 한다. “무엇이든지 … 다 들으라.” 그가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순응해야 한다. 그의 명령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판단이 허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롬 12:2)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그분이 명하신 의무가 아무리 어렵고 금하신 죄가 아무리 달콤하고 유혹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반드시 그 뜻에 순응해야 한다.

(3) 이 복종은 매우 엄중한 형벌을 전제로 요구된다. 그 형벌이란 다름 아닌 백성 중에서 끊어져 멸망당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다(신 18:19; 행 3:23). 신명기 18 장 19 절은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I will require it of him]고 말하는데, 이는 불순종하는 자를 멸망시켜 친히 보복하시겠다는 뜻이다.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계명처럼 예언이 아니라 명령이다.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교리는 다음과 같다. 교리: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의 구속주라는 직분을 수행하시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 교리를 논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는가?
- II.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 III. 그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 IV.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이 계시는 우리 구원에 왜 필연적인가?
- V.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겠다.

I.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 곧 그분의 선지자적 사역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살펴보겠다.

1. 하나님께서 인류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할 특정한 길과 방법을 정해두셨다는 점이다. 이 길을 벗어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 길을 따르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

2. 이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결코 찾아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점이다(요 1:18). 그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경륜이었기에, 사람이나 천사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3.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친밀히 알고 계셨다(요 1:18). 그분은 ‘성부의 품 안에’ 계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참여하셨다.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 가르칠 내용을 듣고 배울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딤후 3:16)이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단 한 번만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고난을 받으신 후의 일이었다(히 9:12).

4.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계시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빚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분은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모든 빛의 근원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라”(사 55:4). 그분은 하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구름기둥이시며, 구원의 빛줄기는 오직 그분에게서만, 곧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서만 세상에 비친다(요 3:13; 고후 4:6).

II.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그것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곧 그들의 덕을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그것은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 기업이 있게 하실”(행 20:32) 은혜의 말씀이며, “너희로 믿게 하고 또 믿어 … 생명을 얻게 하려”(요 20:31) 기록된 말씀이다.

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믿음.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 및 교제에서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임당하신 구속주를 믿는 길로 나아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을 복음 안에서 계시하셨다. 복음을 통해 그분은 성부와 자신 사이에 영원부터 세워진 화해의 신비를 그 모든 부분에 걸쳐 드러내 보이셨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신다.

2. 순종.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 또한 온전히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 율법을 해설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해석으로부터 율법을 옹호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마 5-7 장). 그분은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보여주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가리킨다. 우리 믿음의 기초로서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참된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이자 결과로서 의무의 관점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상이므로, 그중 몇 가지를 간략히 언급하겠다.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래 상태, 곧 인간이 창조되었던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를 알려주신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인간 창조에 관한 담론에서 예시를 든 바 있다. 본래 인간은 거룩하고 행복한 피조물이었고, 하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으며, 이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한 특권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본성 안에 만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죄와 무질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가 상실한 행복을 되찾기까지 지치지 않고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전히 계시의 문제이며, 그에 따라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2. 그리스도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비참함과 불행을 계시하신다. 이 점 또한 이 논의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으며, 현세적·영원적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 이 비참한 상태는 계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슬픈 체험으로 느끼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교리를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신다.

3.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무능력을 계시하신다. 이것은 타락의 치명적인 결과이며, 이 논의의 앞부분에서 일부 언급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호 13:9). 이는 우리의 파멸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우리를 도울 힘은 우리 안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연약하여'(롬 5:6) 죄로 인해 내던져진 비참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인간은 너무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 사람이나 천사의 기술과 능력으로도 그를 건져낼 수 없다. 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도,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다. 이 참담한 인간의 상태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며, 죄인의 구원자를 통해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계시된다.

4.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가련한 죄인들이 죄와 진노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경외로운 지혜의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고 마련되었음을 계시하신다. 이 발견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빛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은혜 언약을 다루면서 이미 논한 바 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이 조항을 자기 백성에게 능력 있게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이 구원의 방법에 동의하게 하신다.

5. 그리스도는 자신이 완전하고 충족한 구원자, 곧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계시하신다(히 7:25). 그리하여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죄책의 속죄와 죄 사함,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유일한 구속자로 받아들인다.

6.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신다(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 정죄에 이르지 않지만, 그분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정죄를 면한다(롬 8:1).

7.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요 구속자로 믿고 영접하여, 생명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께만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또 다른 부분은 우리의 성화이다.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는다. 마음과 삶의 거룩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인간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자격이다. 어떤 부정한 것도 하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지, 곧 그분의 말씀과 영을 함께 사용하여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보이겠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것은 외적 계시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거나 선포된 말씀, 혹은 특별히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특별 계시된 말씀이다. 이는 히브리서 1 장 1 절과 창세기 3 장 15 절에서 나타나지만, 이 방식은 오래전에 그쳤으므로 길게 논하지는 않겠다.

2. 선포된 말씀이다. 이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거룩하신 교사의 자애가 드러난다. (1) 그분 자신의 인격적인 설교를 통해서다. 그분은 육신으로 계시던 날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으며(히 1:1), 이로 인해 ‘할례자의 일꾼’이라 불리셨다(롬 15:8). 그분은 친히 이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사역의 소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일찍이 말한 적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설교에는 하늘의 권위와 위엄이 나타나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았고, 그들이 그분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2) 그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자들을 통해서다. 그리스도는 이런 방식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셨다. [1.] 성육신 이전, 구약 시대에

그분은 교회를 가르치셨다(벧전 3:19). 때로는 선지자들과 같은 특별한 교사들을 통해, 때로는 평범한 교사들을 통해, 혹은 두 방식 모두를 사용하셨다. 이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과 후에 모두 이루어졌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교회가 특별 계시로 양육되었지만,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침받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듯 족장들의 외적 가르침을 통해 훈련받았다(창 18:17, 19).

[2.] 성육신 이후에는 무오하게 인도받은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에는 평범한 목회자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다(엡 4:11). 그분은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 장 끝). 이런 점에서 목회자들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경외로운 울타리로 보호받는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그분은 사람들이 구원과 죄와 의무에 관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명확히 하고자 목회자들에게 나아가도록 명하신다(말 2:7).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지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됨이니라.”

3.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말씀처럼(요 20:31),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영감받은 저자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처럼 교회는 모세 시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고, 오늘날까지도 이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계시받기 위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를 말씀으로 보내신다(사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가르침을 배척하라는 뜻은 아니다(엡 4:11-12).

그러나 말씀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선포된 말씀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사람이 말한 적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조차 대부분 그 설교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요한복음 12 장 37-38 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렸으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기록된 말씀도 같은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며, 발람의 경우에서 보듯 특별히 계시된 말씀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전서 2 장 14 절을 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인간의 정신 위에는 전능하신 능력만이 제거할 수 있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므로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침받는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영으로 가르치시며, 이 영은 외적 계시에 내적 조명을 결합하신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눅 24:45). 이처럼 모든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며, 그들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러나 말씀과 영,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두 가지 다른 가르침의 방식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영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둘을 결합하셨다(사 59: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6 장 13-14 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처럼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되어 끝까지 계속된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강력한 능력과 효력을 발휘한다. 말씀은 지성을 밝히고 양심을 일깨우며 죄를 깨닫게 하고, 효과적으로 사람을 회심시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만 나타난다. 말씀의 모든 능력과 효력은 성령에게서 비롯되며, 말씀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다. 말씀은 자연물이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기적적인 방해가 없는 한 그 효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이

영적인 효력은 베데스다 못의 치유 능력과 같이 말씀 안에 머문다. 요한복음 5 장 4 절은 그 못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말씀 안에 항상 자연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만 주어진다.

말씀이 순수하고 명료하게 선포되어도 아무런 은혜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며, 그로 인해 깨달거나 죄를 확신하거나 회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한 말씀의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도구를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 장 7 절에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말한다.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힘을 스스로 갖추고 있지 않다. 여기서 사도가 뜻하는 바는 그들이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도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으로는 것처럼 강력한 결과를 낳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말씀은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한다. 목회자들은 성령의 통상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비범한 역사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견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행 3:12).

말씀의 모든 능력과 효력은 주님의 영에서 나온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 13 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지성을 밝히고 양심에 죄를 확신시키며 죄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깨뜨린다. 그때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이 된다. 요한복음 16 장 8 절은 말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사용된 ‘책망’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명백한 논증을 통한 확신을 의미한다. 성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인임을 확신시킬 뿐 아니라, 각자의 죄와 그 모든 흉악한 가중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또한

죄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며, 명백한 빛과 양심의 가책, 수많은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여러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것임을 양심의 눈앞에 드러내신다. 그리하여 사람의 양심 스스로가 그 죄의 값은 죽음, 곧 영원한 죽음과 저주임을 판결하게 하신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른 모든 가르침을 월등히 초월하는 탁월함을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명료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그분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와 실례를 들어 가르치셨다. 숭고하고 영적인 신비를 세속적인 은유로 감싸 인간의 낮고 둔한 이해력에 맞추셨으며, 마치 세상사를 이야기하듯 친숙하게 말씀하셨다. 또한 자신의 본을 따라, 목회자들도 “담대히 말하기를” 원하셨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 장 12 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한 바와 같고, “이에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한 고린도후서 4 장 2 절의 말씀과도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조잡하고 부주의한 표현, 즉 저속하고 소화되지 않았으며 상스럽고 무질서한 말을 쏟아내어 듣는 이의 귀를 거스르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거룩하고 진지하며 기품 있는 표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신들의 입술에 어울린다.

과연 사도 바울보다 더 무게 있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말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펜을 통해 우리에게 헛된 과시와 허풍을 경계하라고 권고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미천한 자의 이해력에까지 몸을 낮추어, 백성에게 본문보다 더 모호한 해설을 제공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의 공상을 자극하기보다 양심을 찌르고,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평이한 설교자셨으며, 진리를 지성에 열어 보이셨을 뿐 아니라 지성 또한 진리를 깨달도록 열어 주셨다. 그분은 마음의 휘장을 걷어내시고 영혼에 하늘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정신을 향해 선명한 광선을 쏘아 주신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온전히 만족스럽다. 영혼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가르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가르침에 깊이 만족하여, 자신이 배운 진리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잠언 8장 8-9 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게 가르치신다. 그분은 이생에서나 장차 올 생에서나 우리의 지복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계시하신다. 시편 40 편 9-10 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 것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인간의 모든 의무를 포괄하는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규범을 주셨다. 성경은 타락의 비참함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보내신 경륜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도행전 20 장 27 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라고 말한다. 그분은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5 장 1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디모데후서 3 장 15 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정과 은총을 얻고, 장차 영원히 그분을 누리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 주셨다. 시편 119 편 97 절에서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고백한 바와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태와 조건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관계적 의무 또한 남김없이 계시하신다. 디도서 2 장 11-12 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가르치신다. 그분의 교리에는 그것을 희석하거나 격을 떨어뜨릴 만한 오류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그분의 말과 행동을 살살이 살피며 끊임없이 흠을

잡으려던 악의적인 원수들조차 고소할 구실을 찾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하셨다. 그분은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시며(계 1:5),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고 다른 것을 섞거나 왜곡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고린도후서 4 장 2 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2 장 17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는 거짓 사도와 부패한 교사들의 행태를 반박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오류와 고안물을 뒤섞어 변질시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며, 영혼의 영원한 구원보다 자신들의 현세적 이익을 앞세웠다.

넷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감미롭고 다정하게 가르치신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가 그러했다(눅 24:32). 오래전 그분에 관한 예언은 이러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사 42:2).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사 50:4). 그분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미롭게 스며들었던가? 그분은 사랑의 띠와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아무도 낙심시키지 않으셨고, 자신에게 오는 이를 책망하지도 않으셨다. 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은혜로이 맞아 주실 것을 확인하셨다.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스스럼없는 태도와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은 종종 비난의 빌미가 되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태도가 이처럼 온유하고 감미롭기에,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린다(계 19:7).

다섯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가르치신다. 그분을 따르던 무리는 그분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심을 알아보았다(마 7:29). 서기관들은 무기력하고

냉담한 설교자여서 그들의 말은 입술 사이에서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효력과 능력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교리에는 빛뿐만 아니라 열기가 있었다. 오늘날 비록 가난하고 약하며 멸시받는 이들의 입을 통해 선포될지라도 그 교리는 여전히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0 장 4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거룩한 사도는 위대한 스승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을 전했다. 그의 말은 죄인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떨게 했다. 물론 신실하고 유능한 사역자들이 모두 이 방면에서 동일한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가르침에는 거룩한 진지함과 영적인 은혜와 위엄이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심과 존중을 품게 한다.

여섯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무오하게 가르치신다. 가장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자신과 같은 실수로 이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류나 실수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의 영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오직 진리만을 따르게 하신다(요 16:13). 그분은 오류가 없는 인도자이시며, 자신의 양들이 죄와 허영의 산에서 헤매다 영원한 파멸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목자이시다.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이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에 이른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그분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6 장 16 절에서 말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그 가르침은 영혼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새겨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곁에 굳건히 머문다. 그분은 가르치시는 것을 마음에 기록하신다. 예레미야 31 장 33 절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약속한다. 주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을 열어 주신 은혜로운 영혼들은 훗날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를 일깨웠던 그 성경 구절, 나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약속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시편 119 편 93 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덟째,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다. 그분께 배운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이 신적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에 관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5-16). 세상의 다른 수많은 지식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옥으로 갈 뿐이다.

어떤 이의 말처럼, 지옥 용광로의 바닥은 수많은 위대한 학자들의 해골로 포장되어 있다. 배운 머리를 가졌으나 은혜 없는 마음을 지닌 이들이 많다. 그러나 영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다. 우리 구주께서 요한복음 17 장 3 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가르침은 마땅히 ‘생명의 빛’이라 불리며(요 8:12), 사람들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가르침을 월등히 초월하므로, 옛적에 그 말씀을 듣던 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IV.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논의에서 구원을 위해 이 계시가 왜 필연적인지를 다룰 것이다. 이 계시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인간은 본성상 참된 행복과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복음 계시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비참함을 피하고 영원한 행복과 영광에 이르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미 6:6-7).

그러나 여기서 ‘자연의 빛만으로 구원의 길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계시는, 인간의 본성적 어둠과 영적 무지 때문에 반드시 더해져야 했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들 안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지성이 어두워져 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는 것이다. 자연의 빛이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분께 받으실 만한 예배와 섬김을 드릴 수 있는지는 가르쳐주지 못한다. 이는 이방인들의 경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로마서 1 장 23 절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예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에 대해 합당치 않은 생각을 품고, 이성적 본성이 드리기에 도 부적합하고 하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받으시기에도 합당치 않은 예배 행위를 함으로써 그분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피조물에게 돌렸다. 해와 달과 별은 물론, 이 빛나는 천체들을 다스린다고 여겼던 보이지 않는 힘들에게까지, 심지어 자연계의 가장 비천한 것들에게까지 그리하였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자연의 빛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여러 훌륭한 도덕적 의무를 지시하지만, 그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빛을 미워하는 본성적 적의까지 품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치유하고 비추시기 전까지, 인간의 자연적 기능이 영의 일을 분별하는 것은 감각 기능이 이성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떨어져 먼지가 된 후에 그 글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듯,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안에서 참된 개념을 읽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 장 17-18 절에서 탁월하게 묘사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서 바울은 ‘마음의 허망함’, ‘총명의 어두워짐’, ‘마음의 굳어짐’을 지적한다. 이성적 영혼의 모든 본질적 기능이 완전히 부패한 것이다. 원리를 간직하는 저장고이자 선악을 판단하는 고귀한 기능인 정신(mind), 한 가지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이끌어내 결론을 형성하고 그 원리들을 실천적 지침으로 바꾸는 추론 기능인 지성(understanding), 그리고 이 원리들을 적용하여 삶의 무대 위로 이끌어내는 의지, 양심, 어펙션(affections)을 포괄하는 마음(heart)까지, 모든 것이 부패했다. 자연 지식과 통치술(civil prudence)이 가장 뛰어난 민족들의 야만적인 행위가 사도의 이러한 진단이 옳음을 입증한다. 지혜와 학문으로 명성이 높았고 세계 곳곳에 과학을 전파했던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예배 행위에 있어서 짐승보다 못했다. 자신들의 아테네를 ‘세상의 눈’으로 여겼던 그리스인들도 삼만 개나 되는 신들을 숭배했으니 더 세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신들 중에는 살인과 간음으로 악명 높은 자들도 있었으며, 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최고선에 관해 324 개의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통치술이 탁월했던 로마인들 역시 열병을 숭배하고 창녀에게 ‘꽃의 여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으니, 그들에 비해 나올 것이 없었다. 로마의 한 위대한 철학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품고 있던 다양한 개념들 속에 나타난 무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의와 절제를 실천하여 복음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에 관해서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다.

이제,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자연의 빛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몇 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타락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의 첫째 원인이자 근원이다. 인간의 지성은 아무리 정밀하게 탐구하고 연구해도 이 사실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교 철학자들은 영혼의 수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또 제어할 수 없는 정념의 맹위와 폭압에 비참하게 종속되어 있음을 절감했지만, 그 치명적인 원인을 찾아내거나 그 흐름의 진정한 기원을 추적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것도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았지만, 이 무질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계시 없이는 어림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플라톤이 인간의 원초적 상태와 타락한 상태에 대해 어렵듯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는 전자를 토성 치하의 황금시대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후자를 자신이 살던 목성 치하의 비참한 철의 시대라는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러한 통찰을 유대인의 성경이나 전승에서 얻었으리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오리게네스는 플라톤이 이집트에서 유대인들과 교류하며 인간 타락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우리 모든 불행의 첫째 원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진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모든 비참과 고난의 근원이자 쓰라린 뿌리인 아담의 타락을 알지 못한다. 자연의 빛은 너무 희미하고 약해서 죄악의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없다. 또한 그 빛만으로는, 모든 무질서한 행위의 모태가 되고 그것을 키워내는 죄의 내적 힘과 권세를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본성의 어두운 구름을 꿰뚫고 심연을 탐사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었고 한때 우리가 소유했던 올바름에서 우리 본성이 습관적으로 어긋나 있음을 드러내 줄 또 다른 빛이 필요했다.

둘째, 자연의 빛은 우리 예배의 참되고 합당한 대상, 곧 영광스러운 신격(Godhead)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다. 이 거룩한 교리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이어서 인간 지성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다.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총명한 철학자들조차 많은 것의 원인을 발견했고, 별의 크기, 움직임, 영향력이나 식물과 광물의 본질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여러 주제에 관해 탁월하게 논할 수 있었지만, 가장 정밀한 탐구와 조사를 통해서도 삼위일체의 신비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중대한 조항은 그들에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고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고대 철학자 중 일부가 삼위일체에 관해 어렵듯하고 불완전한 전승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피타고라스가 그리스에 가져온 신에 관한 위대한 동방의 격언, 즉 신은 ‘헨 카이 폴루’(hen kai polu), 곧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말이 삼위일체에 관한 유대 전승의 파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플라톤주의자들 역시 그들이 삼위일체라 부른 세 휘포스타시스(hypostases),

즉 세 위격에 대한 미약하고 변질된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관한 이처럼 미미한 지식들은 피타고라스가 먼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플라톤이 유대인에게서 직접, 혹은 페니키아인과 이집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그리스, 이집트, 페니키아 철학자들 중 누구도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해 온전하고 참된 개념을 갖지는 못했다. 그들이 이 신비에 관해 전해 받은 단편적인 발견들에 얼마나 많은 신화와 모순을 뒤섞었는지를 냉철한 정신으로 고찰해 보면 이 사실은 명백해진다. 플라톤 자신도 “고대인들에게서 많은 신비를 전해 받았으나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풀어줄 해석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신비를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낸다. 마태복음 3 장 16-17 절, 요한일서 5 장 7 절,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을 보라. 이 구절들과 다른 성구들은 내가 삼위일체 교리를 논할 때 이미 고찰한 바 있다. 복음은 신격 안의 각 위격의 본성과 사역, 그리고 연합되고 구별된 선의 행위와 표현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인간 구속의 사역에 함께하심을 발견한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셋째, 자연의 빛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회복의 길과 방법을 알려주지 못한다.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의 전체 구상은 우리의 가장 예리한 탐구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을 세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원한 선택의 신비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여 죄와 비참의 심연에 스스로 빠질 것과, 그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천지의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가 멸망하여 지옥의 영원한 전리품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으므로, 자신의 영원한 목적과 작정 안에서 일정 수를 구별하셨다. 그들을 자비의 그릇으로 삼아 끝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주권적 은혜와 풍성한 자비의 무한한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 하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 장 4-6 절에서 가르치는 바가 이것이며, 나는 이 저술의 앞부분에서 이 구절을 이미 상술했다. 이는 실로 가장 명석한 이성으로도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심오한 신비이지만,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2)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방법을 계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만일 아들이 구속 사역을 맡아 선택받은 자들을 죄와 진노에서 해방시킨다면, 그에게 도우심과 수많은 후손과 위대한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응하셔서 죄인의 보증인이 되어 그 빛을 갠기로 약속하셨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기꺼이 정의의 심판 아래 서셨고, 그들의 저주가 되어 그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고소당하고 정죄받으셨으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성부의 진노가 주는 충격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보증인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시편 40 편 6-7 절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주께서 희생과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책에 나에 관해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는 이 위대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에 기꺼이 순종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몸을 취하셨다. 빛을 갠 언약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본성을 지니셔야만 했다. 히브리서 10 장 5 절은 이를 두고 “오직 한 몸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도다”라고 기록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율법의 희생제사들이 상징했던 그 고난을 겪기 위해 몸을 가지셔야 했다. 그는 죄를 제외하고는, 타락한 우리 본성의 모든 연약함을 지닌 육신의 몸을 취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복음으로 조명되지 않았다면 천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미칠 수 없었던 위대한 신비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전서 3 장 16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주제는 앞서 구속주의 성육신을 다룰 때 상세히 논한 바 있다.

(3) 자연의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알려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써 드리진 화목제물로 세워지셨다. 선택받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의 방식은 자연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인간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율법의 씨앗 같은 것, 즉 경건과 정의와 자비의 보편 원리가 있다. 이것이 없다면 세상은 이내 와해되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구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짐작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중보자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길을 스스로 찾아내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활동적이고 탐구적인 이성이라도 성육신의 경이, 즉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 일을 결코 생각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생명의 통치자의 죽음과 고난, 영광의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지성은 아무리 밝고 명료하다 한들 타락했기에, 온갖 논증과 추론의 도움을 다 동원해도 이 지식에 이를 수 없었다. 이 신비를 거룩한 천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조차 초자연적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사도는 에베소서 3 장 10 절에서 말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잠겨 있던 것으로, 교회에 계시되기 전까지 천사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리고 그 계시 이후에도 이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들은 복음의 전체 경륜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여전히 더 깊이 탐구하고 있다. 사도가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벧전 1:12)라고 말하는 바와 같다.

넷째, 자연의 빛은 죄를 향한 최초의 성향 자체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교 철학자들은 감각적 욕구의 무질서를 그 자체로는 죄가 없고 무해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 무질서가 영혼의 상위 부분에 영향을 미쳐 도덕적 행위를 숙고하거나 결단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 본성에 깊이 달라붙어 있는 원초적 오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기능이 본성적인 것이므로, 금지된 대상을 향한 최초의 움직임 역시 자연스러운 갈망일 뿐, 비뚤어진 정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의 모든 교훈은 마음의 계획에만 국한될 뿐, 하위 기능들의 욕망과 충동은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무관한 문제로

치부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정화의 덕목에 수많은 오점과 더러움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의 모든 습성과 기질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그 모든 움직임과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하며,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섯째, 자연의 빛과 철학은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해도 경건의 관점에서는 결함이 많고, 여러 면에서 오히려 경건에 반한다. 다음의 개별 사항들을 통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1) 그들은 신성에 관해 합당치 않은 개념을 제시한다. 평범한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저명한 철학자들조차 저급하고 합당치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 일반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광대하고 불가해한 완전성을 자신들의 천박한 상상력이라는 좁은 잣대로 재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참된 개념은 그분이 무한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하늘과 땅의 보편적 창조주이자 능력의 보존자요, 모든 사건의 절대적 주관자이심을 의미한다. 그분의 섭리는 피조물의 모든 움직임과 행동을 살피고 주관하며,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후히 상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공의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철학자들 중 일부는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 어떤 이들은 세계가 영원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만물의 첫째 원인이심을 부인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존재를 하늘의 한 극점으로 제한했고, 다른 이들은 그 범위를 단지 세상의 넓이만큼으로 한정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전면 부인하며, 그분을 이 땅의 일을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한가한 관조자로 전락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과 영광에 만족하시므로, 그분 바깥의 어떤 일도 그분의 생각이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치 세상의 온갖 우연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그분의 복된 상태와 양립할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그들은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을 시인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분을 부인하는 꼴이 되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왕국과 민족의 중대사를 돌보시고 왕관과 왕홀과 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인정했지만, 개별적인 일들까지 살피시는 것은 신적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창공에서 내려와 어둠 속 하인을 위해 촛불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한 일로 여겼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권을 빼앗아, 변하기 쉬운 만물을 주관하는 어리석고 맹목적인 힘을 내세웠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연의 종으로 전락시켜 천체를 필연적으로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종속시킴으로써 그분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가장 현명하다는 이교도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상상으로 신성을 모독했으며, 그분의 고유한 속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했을 뿐이다.

(2) 철학과 자연의 빛은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건에 관해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다. 율법의 첫째가는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철학자는 자연 종교의 핵심인 이 계명에 대해서는 거의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물에 관해서는 그토록 명석했음에도, 하나님에 관해 논할 때는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듯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그의 윤리학에서는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과 순종의 합당한 대상으로 다루어야 마땅했음에도, 그에 관한 서술을 완전히 누락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다른 모든 미덕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친밀하고 기쁨 넘치는 상태로 인간을 준비시키는 규칙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보이는 이유이다. 플라톤 철학에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일부 있다 해도, 그 표현은 냉랭하고 모호하여 마치 마모된 고대 주화나 대리석 명문처럼 거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반면 복음은 모든 인간의 가르침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제시하여,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분발시키고 이끌어낸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며, 우정과 사랑의 방식으로 그분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할 은혜로운 기질들을 힘써 구하도록 촉구한다.

(3)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조차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기 나라의 종교에 순응해야 한다”는 예속적이고 해로운 격언을 내세웠다. 한 분의 지고한 하나님을 인정했던 소크라테스마저도,

친구들에게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예배에서 신과 피조물을 구별하지 말고 당대의 보편적인
 우상숭배를 따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미신에 빠진 헛된 자라고 낙인찍었다.
 소크라테스 자신의 실천 또한 이러한 조언과 일치했다. 그는 고발당한 죄목을 벗고자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이 신전에 드나들며 제사에 참여했음을 공언했다. 세네카 역시 이교 예배가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리석은 군중이 많다는 이유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철학자라면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에 순종하기 위해 이러한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들은 종교를 국가의 종속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이교 미신이 요구하는 의식들, 곧 그 의식의
 주관자인 악마가 정해진 대로 더럽고 기괴하며 잔혹한 제의들을 수행했다.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피조물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추악한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이는 영적 타락에 대한 육체적 불결함이라는 정당한 형벌이었다(롬
 1:23-24).

(4) 철학은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최고이자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철학자들의 교훈과 지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관점과 의도를 품고 있었다.

첫째, 그들은 미덕을 세상의 명예와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는 그들의 저서와
 행동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들은 자기애라는 병에 걸려 있었고, 남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아서, 내면의 참모습은 감춘 채 겉으로는 인위적으로
 진실을 모방하여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하찮은 공로에 자만심으로 부풀었고,
 허영심은 대단했다. 이처럼 타인의 평판을 의식하는 태도는 행위의 동기를 부패시키고 그 행위
 자체를 타락시킨다. 이는 진실한 미덕이 아니라 피상적인 외양에만 치중하는 태도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실제로 유덕하지 않아도 유덕해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내세운 가장 그럴듯한 행위들 다수가 사실은 위장된 죄였으며, 그들의 미덕이 그들이 섬긴
 신들만큼이나 거짓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둘째, 철학의 목적은 방종과 무질서가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해악을 예방하거나, 혹은 욕정과 분노에서 비롯되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격한 감정들을 억제하여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있었다. 이는 미덕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만 여겨 사랑했던 에피쿠로스가 내세운 목표이기도 했다.

셋째, 철학의 가장 높은 목표는 미덕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매혹적인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이끌고 움직이는 가장 가치 있는 동기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설령 일부 이교도들이(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미덕의 내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료되어, 사적인 동기 없이 오직 행위의 올바름과 그로부터 솟아나는 내적 만족을 위해 어떤 일들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왜냐하면 미덕은 신성의 한 줄기 빛에 불과하며, 우리의 의무는 그 미덕의 원리이자 본보기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지 않는 한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다. 따라서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최상의 행복이듯,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함은 가장 정의롭고 합리적인 귀결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질서 잡힌 것일 수도,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도 없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적 계시의 필연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실천적 교훈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이 교리로부터 우리는 향존하는 사역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사역자들과 사신들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신다. 이를 위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존속할 견고하고 영속적인 제도를 교회 안에 세우셨다(마 28:16-20).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선행해야 할 위대하고 귀한 특권이다. 이 특권 하나만으로도 신자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외적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사야 30 장 20 절이 바로 그 약속을 증언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사 30:20).

2. 그리스도께서 스승의 직분을 행하시므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은 가장 우둔한 자도 가르치실 수 있으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지성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무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무지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라. 그러면 그분은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이 자연의 빛을 최대한 활용하여 얻은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3.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에게서 둔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쉽게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시 19:7). 참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를 택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는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다(고전 1:26-27). 그러므로 연약하지만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여, 주변 사람들만큼 사물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웃이 다른 분야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지라도,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면 반드시 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물론 다른 이들이 여러 지식 면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이 가진 한 방울의 지식이 그들의 모든 세속적 지식의 바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 믿음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품에서 얻은 한 가지 귀한 진리는, 지성을 고문하여 억지로 깎아낸 메마른 개념 일만 가지보다 무한히 더 낫다.

4. 기도는 지식을 더하는 합당한 수단이며, 그 신성한 보물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이다. 다니엘은 갈대아 술사들이 온갖 지혜를 짜내고도 풀지 못한 왕의 꿈속 비밀을 해석해야 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단 2:17-18). 그 결과, 그는 비밀을 계시받는 성공을 거두었다. 루터는 명상, 시험, 기도 이 세 가지가 신학자를 만든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 이웃 나라의 한 경건한 인물은 무릎을 꿇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실로 기도로 얻은 진리는 마음에 비할 데 없는 감미로움을 남긴다. 여러분은 여러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분께서

지성을 열어 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실천한 방식이었다(시 119:18, 33-34 참조).

5. 이 교훈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우라. 성경을 멀리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고 경외와 사랑으로 읽으라. 말씀 선포와 교리 교육, 성례 집행에 경건한 의무감으로 참여하고, 여러분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그 교리를 받아 마시기를 힘쓰라.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들 가운데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지금처럼 이 거룩한 일들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6. 성령을 말씀과 분리하는 퀘이커교도나 다른 열광주의자들의 가증스러움을 보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꿈, 환상, 음성, 감동 따위를 신뢰하여 원리를 세우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말씀을 통한 진지한 성찰 없이 자신의 가벼운 공상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모든 이들의 행위는 주님께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스승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어둠일 뿐이다.

7. “행하라, 행하라”는 말 외에는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형식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가증스러움 또한 보라. 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자신의 공허함과 어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의지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성령 없이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자기만의 대장간에서 망치질하여 얻어낸 것에 만족함으로써 말씀을 성령과 분리시킨다. 결국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시고 성경의 진리를 밝혀 주시는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직 영혼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지혜를 벗어나 그리스도께 나아가, 빛과 지식의 감화를 얻기 위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만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8. 그러므로 성령 없이 말씀의 가르침만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 그토록 많이 듣고도 성령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긴단 말인가? 그리스도는 다른 이들에게는 선지자가 되실 수 있으나, 그런 자들에게는 선지자가 되실 수 없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4 장 3-4 절의 이 두려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9.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영접하고, 날마다 선지자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지혜와 분별력을 내려놓고,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이 거룩한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으라. 온유한 자에게 주께서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가르침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위해 이 위대한 선지자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3 장의 23 절에 기록된 무서운 경고를 생각하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가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행 13:40-41) 하신 경고를 두려워하라.

10.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음의 표지들을 제시한다. (1)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혼을 매우 겸손하게 만든다. 인간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신적인 지식은 사람을 낮추고 무너뜨린다. 이 지식은 자기 가치에 대한 온갖 자만심을 비우게 하고, 자신에 대한 낮고 천한 생각으로 채운다. 욥이 그러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욥 42:5-6).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함과 위엄, 그리고 그분의 찬란한 속성들을 드러내는 바로 그 성령의 빛은, 동시에 이사야의 경우처럼(사 6:5) 인간, 심지어 가장 선하고 거룩한 인간의 비천함과 무가치함, 공허함을 남김없이 드러낸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이신 왕을 뵈었음이다.”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뵈고 나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칭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깊이 겸손해져 자신의 공허함과 비천함을 묵도한 적이 있는가? 교만과 자만심에 부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무관한 자이다.

(2)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명을 준다. 이는 죄인의 영혼에 온전히 가닿는데, 호세아 2 장 14 절에서 ‘내가 그를 위로하며’라고 하신 말씀과 같다. 원문의 뜻은 ‘내가 그의 마음에 말하리라’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큰 악과 위협을 보여 주실 때, 영혼은 깊이 깨닫고 감동하여 세상의 어떤 위로도 기쁨이나 감미로움을 주지 못하며, 모든 것이 달걀흰자처럼 맛없고 무미건조해진다. 반대로 그분께서 영혼에 평화를 말씀하시고 죄 사함을 알려 주실 때에는 영혼이 위로와 새 힘을 얻으므로, 아무리 무겁고 힘든 고난과 압박이라도 그 무게나 쓴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하늘에서 온 위로 한 방울은 지상의 온 바다 같은 고난을 달게 만들고, 영혼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시편 기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시 94:19)라고 노래했다.

(3)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혁한다. 에베소서 4 장 21-23 절은 이렇게 말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함과 순결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낳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거룩함은 외적인 동시에 내적이며, 소극적인 동시에 적극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동화(同化)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영혼을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고후 3:18).

(4)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실천적이어서 즐거운 순종을 낳는다. 그리스도에게서는 공허한 관념이나 쓸모없는 사변을 배우지 않는다. 그분의 창조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르침의 말씀도 항상 효력을 발휘한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영혼에게 ‘너는 겸손해지라’ 하시면 그 영혼은 실제로 겸손해진다. 욥의 경우가 그러하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는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욥 40:4-5). 또한 ‘너는 위로를 받으라’ 하시면 즉시 위로가 임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사 66:13)라는 말씀과 같다.

(5)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불일치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 장 26 절이 이를 증언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께서 죄인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것이 책망이든, 교훈이든, 위로이든, 언제나 성경의 명시적인 말씀을 사용하시거나, 모든 면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따라서 기록된 말씀은 모든 교리를 분별하고 시험하는 기준과 시금석이 된다. 이사야 8 장 20 절은 말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경과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것은 마귀의 기만적인 궤변이자 속임수일 뿐이다.

(6) 그 가르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스승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어,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시 73:25).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히브리서 7:17 -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문맥을 보면, 사도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논하면서 시편 110 편 4 절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는 구절을 그분께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명제가 제시된다. 첫째, 그리스도는 실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시라는 점이다. 둘째,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라는 점이다. 이는 두 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며, 한쪽이 다른 쪽의 중요한 모형(type)임을 보여 준다. 이 유사점은, 멜기세덱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했던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빵과 포도주, 즉 피 없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에 있다.

(1) 이름: 그리스도는 참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점에서 멜기세덱은 그분의 모형일 뿐이다(히 7:2).

(2) 기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불멸의 존재처럼 그려진다(3 절). 그의 출생과 가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사람으로서는 아버지가 없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어머니가 없으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 근본이 상고(上古)에, 영원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중요한 모형이 된다.

(3) 영속성: 멜기세덱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살아 있는 자로 제시된다(8 절).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히 살아 계시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4) 직분: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살렘, 곧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시며, 시온 곧 교회의 왕으로 세워지셨다.

(5) 유일성: 멜기세덱은 그 직분에 선임자나 후임자가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지셨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셨다. 그분이 드리신 제사는 완전하기에 다른 제사장들이 더는 필요 없으며, 그분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가지셨으므로 후임자도 없다.

(6) 존엄성: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제시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둘 모두보다 위대하시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직분에는 죄책과 죄의 짐으로 고통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가련한 영혼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이 담겨 있다. 다른 모든 치유책이 소용없음이 드러났을 때, 오직 믿음으로 떨고 있는 양심에 부러진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만이 그 양심을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평안을 준다. 본문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 한 번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 교리를 논함에 있어, 첫째로 그리스도가 참되고 합당한 제사장이심을 보이고, 둘째로 그 제사장 직분의 본질을 설명하며, 셋째로 몇 가지 실천적 적용점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합당한 제사장이심을 보이겠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사실에서 명백하다.

1. 성경이 그분을 제사장으로 증언한다(시 110:4; 히 5 장 등).
2. 그분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신다.
3. 그분은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과 멜기세덱처럼 실제 제사장들을 통해 예표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의식법 아래의 제사장 직분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지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알 수도 없다. 성령께서 그의 족보와 시작과 끝, 혈통을 의도적으로 감추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더 잘 예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마침내 다시 들려 올라가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히브리서 7 장 3 절은 그에 대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기록한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데, 이는 육체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나 율법적 의식, 인간의 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적이고 하늘로부터 온 제정과 생명의 영의 직접적인 기름부음을 통해서였다. 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셔야 했다(히 7:16).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셨던 이유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약하며 무익했으므로 폐지되고 다른 제사장 직분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율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폐하실 분에게로 인도되어야 했다(히 7:11-12). 그리스도의 사역과 약속은 율법의 그것들보다 더 나은 것이었으므로, 그것들을 집행하는 직분인 그분의 제사장직 또한 더 탁월해야 했다(히 8:6). 율법과 언약이 폐지될 때, 그것들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사장 직분 역시 소멸해야 마땅했다.

둘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죄인이었기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히 5:3).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므로,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히 7:26-27). 그분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의 눈앞에서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설 수 있으셨다. 비록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셨으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만일 그분이 아주 작은 죄에라도 오염되었다면,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죽어야 할 존재였기에 그 수가 많았다. 죽음이 홍수처럼 그들을 끊임없이 무대에서 쓸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시 110:4). 히브리서 7 장 23 절은 “이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넷째, 율법 아래 제사장 직분은 바뀔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불변한다. 율법의 경륜은 단지 한시적으로만 지속되도록 계획되었다. 그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예고하는 새벽과 같아서, 태양이 지평선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이내 사라져 버린다(히 7:12).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맹세로 확증하셨다(시 110:4; 히 7:21). 이전에는 두 가문에 나뉘어 있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그분께 부여되었다. 이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나라이므로, 거룩한 일들을 관장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신 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도는 “이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한다(히 7:24).

다섯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어린 양, 숫양, 송아지, 황소 등 여러 종류의 희생 제물을 수없이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단 하나의 희생 제물, 곧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히브리서 9 장 25-26 절은 이렇게 말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나셨던 점은, 그분에게는 드릴 만한 자신의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분에게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몸이 주어졌다. 히브리서 10 장 5, 7, 10 절은 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분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다(사 53:10). 우리는

죄로 인해 영혼과 몸을 모두 상실했으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에 상응해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오셨을 때, 그분은 제사장의 자격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자격으로도 서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대신했고, 그분의 몸은 우리의 몸을 대신했다.

여섯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이 드린 모든 희생 제물은,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희생 제물의 모형이었다. 그 제물들은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모든 제물이 예표한 실체로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속하는 효력을 지닌다(히 10:1, 4, 14).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 그가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하며 무한한 효력과 능력을 지닌다. 그 희생은 속죄 제물로 드러졌기에, 그 본질적 가치는 그것으로 구속될 모든 영혼과 몸의 가치에 비견될 만하고 동등해야만 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 한 개가 수만 개의 조약돌보다 더 가치 있고, 금 한 조각이 수많은 싸구려 계산패보다 더 귀하듯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을 드린 희생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과 몸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일곱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자체에 들어가신다. 레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으며,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형이었던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으로 하늘 자체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시는 일을 예표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9 장 24 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한일서 2 장 1 절은 말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덟째, 율법 아래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만 가졌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II.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의 본질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자. 제사장의 직무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는 두 가지 부분, 곧 희생 제물의 봉헌과 중보가 있다.

그리스도의 봉헌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의 한 부분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봉헌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봉헌의 의미,
- 2) 희생 제물의 내용,
- 3) 자신을 드리신 횡수,
- 4) 대속의 대상,
- 5) 자신을 드리신 목적,
- 6) 단 한 번 드린 제물의 효력이다.

첫째, 봉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봉헌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발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5 장 2 절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은 다시 얻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 그분은 자신이 겪을 고난과 자신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서운 폭풍, 그리고 악한 자들과 십자가에서 당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미리 잘 알고 계셨지만, 때가 이르자 그 끔찍한

죽음의 채비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셨다. 설령 제자들이 할 수 있었다 해도, 그분은 자신을 임박한 위험에서 구해 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오히려 한 말씀으로 추격자들을 땅에 쓰러뜨리는 신적 능력의 현저한 실례를 보이신 후에(요 18:6), 피에 굶주린 그들에게 스스로 몸을 내어주신 사실은 그분이 결코 강요당하지 않았으며, 의도하신 봉헌에 마음으로 자원하셨음을 증거한다. 고난의 잔은 늘 그분 눈앞에 있었고, 그분은 그 잔 마시기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다. 참으로 그분은 그 잔을 맨 밑바닥까지 다 마시기까지 고통스러워하며 답답해하셨다.

2. 십자가에서 영혼을 내어주시기 직전에 지르신 큰 소리는 그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자연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이 그분과 함께했음을 증거한다. 그분은 하나님과 성경의 관점에서 죄인이 아니셨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자 인간과 천사의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기에, 그분이 원치 않으셨다면 죽임을 당하실 수 없었다. 그때 그분이 지르신 큰 소리는 죄인이 생명을 잃는 것을 꺼리며 드러내는 나약함이나 주저함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그 끔찍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에게서 나오는 승리의 외침이었으며, 자발적으로 성취하기로 하셨던 그 고된 과업을 완수하신 기쁨과 환희를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함성이었다.

둘째, 그분이 드리신 희생 제물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이 주제와 관련하여 희생 제물에는 두 종류가 있었음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1. 어떤 제물은 감사제(eucharistical) 즉, 경의와 복종, 의무와 섬김의 증표로 드리는 감사 헌물이었다. 첫 열매의 봉헌, 소제, 전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분의 가장 작은 은혜라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받은 자비에 대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런 종류가 아니었다.

2. 어떤 제물은 속죄제(expiatory) 즉,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희생 제도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1) 인간은 죄인이므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극심한 불쾌감을 사기에 마땅하며, 맹렬한

진노와 복수 앞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 인간을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을 달래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진리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소위 속죄 행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적 양심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지만, 성경에서 더욱 분명하게 계시된다. 율법 아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정의의 속죄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자비로 조절되어, 범죄자 대신 희생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희생은 바로 이 후자의 종류, 곧 속죄 제물이었다.

참되고 합당한 희생 제물에 필요한 이 모든 요건이 그분의 희생 안에서 충족되었다.

1.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사장이어야 했다. 율법 아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였다. 사도가 히브리서 5 장 1 절에서 말하듯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 직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집의 대제사장이 되셨다(히 5:4, 5, 6, 10). 그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 불리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신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일컬어진다.

2.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에 상응하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 빛이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고난받으실 영혼과 몸을 지니셔야만 했다. 성경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며(사 53:10),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히 10:5)라고 하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는 말씀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라는 말씀도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합당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인성 안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영혼과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행위나 고난은 인격 전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고 일컬어진다(행 20:28). 그러나 희생 제물은 고난을 내포하며 신적 본성은 고난을 겪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신적 본성 안에서가 아니라 인적 본성 안에서였다. 이는 살인자가 사람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분이 몸으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은 복음서의 수난 기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며, 그분의 영혼이 겪은 고난 또한 같은 기록에서 명백하다. 그분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영혼의 고난을 증언하셨다. 이 영혼의 고통이야말로 그가 겪은 모든 고난의 정수였으며,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다. 그 고통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1)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영혼에서 모든 위로가 가려진 것(시 22: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에 각인되어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셨으나, 동시에 아들로서 그를 기뻐하셨다. (3)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이 그 어둠의 시간에 배가된 격렬함으로 그분을 공격한 것. 이 세상의 군주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맹렬하게 그분을 공격했다.

3. 이 희생 제물을 드린 제단이 있었다. 제물은 제단을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열납되며, 인간에게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히 9:14)고 말하며,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인간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그 희생의 능력과 공로를 통해 자기 백성 또한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었다(요 17:19). 그의 인성이 겪은 고난에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더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적 본성일 수밖에 없었다. 인성은 고난을 겪고 신성은 그 인성을 거룩하게 했다. 이 놀라운 연합과 신성이 인성에 부여한 가치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인성에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사도는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기록했다. 바로 이 신성 덕분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를 진정시키고 만족시켜 그분께 기쁘게 열납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신성 덕분에 그 고난은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죄책을 제거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된 인성을 가지셨고, 그 제물에 무한한 존귀와 가치를 부여한 신성 안에 거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으로는 제사장이요, 그의 인성으로는 희생 제물이며, 그의 신성으로는 제단이었다.

4.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 자의적 숭배(will-worship)에 불과하며, 개의 목을 베거나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가 될 수 없었다. 이는 자원제물에 관해 모세가 전한 율법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레 5 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것은 이성적 영혼을 지닌 살아 있는 몸이었고, 그 영혼은 제물로 드려질 때 몸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일컬어진다. 이 영혼과 몸이 그의 인성을 구성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 제물이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5.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은 파괴되어야 했다. 이는 희생 제사의 본질이다. 생명이 있는 제물들은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피는 쏟아졌으며, 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혹은 일부가 불에 태워졌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신 것은 레위 제의에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에 해당하며, 그분의 고난(‘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되는)은 그 제물들을 불사르는 것에 상응했다. 히브리서 13 장 12-13 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성문 밖에서 받으신 그분의 고난은 진영 밖에서 제물을 불사른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6.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다른 이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였다. 이런 까닭에 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일”(히 5:1)이라 불리며,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역시 하나님께 드려졌다(히 2:17).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진노하신 당사자였고,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했다(엡 5:2). 진노하신 당사자가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 사실 안에 경이로운 신비가 있다.

셋째,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몇 번이나 드리셨는지 고찰해 보자. 그것은 단 한 번이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히 9:28). 이 단 한 번의 드림으로 그분이 자신을 드리신 목적은 온전히 성취되었다. 사도의 말처럼,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과 우리의 대제사장 사이의 차이점이다. 레위 제사장들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그들의 사역이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만 자신을 드리셨다(히 10:14).

성례가 희생 제물로 변질된다는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성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례는 그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히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지 살펴보자.

1.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 다니엘 9 장 26 절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셨으나, 그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었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율법의 어린 양들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점 없는 어린 양이셨다. 동정녀의 태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잉태는 원죄를 원천적으로 막았고, 그의 생애에는 어떠한 자범죄도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히 거룩하셨고, 인간으로서 그 삶이 온전히 거룩하셨다. 그의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 몸의 모든 지체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고양되었다. 또한 그분은 삶 속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2. 그리스도는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 그들을 위해서는 정해진 희생 제물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자마자 즉시 그분의 임재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사슬에 매여 큰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셨다. 그분은 오직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3.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남녀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물론 그분의 희생 제물에는 온 세상의 죄, 나아가 수백만 세계의 죄에 대해서까지도 침해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과 효력이 있었다. 이는 그분의 위격이 지닌 무한한 존귀와 탁월함으로 인해 그 피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분을 온 세상의 구주라 칭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의 구원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첫째, 성경은 그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특정 무리로 제한하는데, 이들은 때로 ‘하나님의 교회’라 불린다. 사도행전 20 장 28 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5 장 25 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말한다. 때로 이들은 ‘그의 양’이라 불린다. 요한복음 10 장 15 절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기록한다. 또한 이들은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로도 불린다. 요한복음 17 장 2 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0 장 26-29 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정 무리에게 한정되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배제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분명 모든 개개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유기된 세상을 자신의 기도에서 제외하신다. 요한복음 17 장 9 절에서 그분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이루는 두 부분, 곧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중보기도는 그 적용 범위가 동일하다. 성경은 이 둘을 불가분하게 연결한다. 로마서 8 장 34 절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말하며, 요한일서 2 장 1-2 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모든 이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이다. 그분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 장 8 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한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의도와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주장하면 중대한 부조리가 뒤따른다.

(1)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복된 이름이나 그 죽음으로 얻게 된 축복과 은혜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무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며,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어긋난다(롬 10:14-16).

(2)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는 그분이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식들, 곧 하나님께서 유기하여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뜻이 된다.

(3)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은 지금 지옥에서 구원의 희망 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셈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벌을 대신 지셨음에도, 그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스스로 형벌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받게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4)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구원하려는 의도로 죽으셨다면, 그분은 불완전한 구원자가 된다. 즉, 사람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피로 구속을 이루셨으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능력이 없는 구원자가 되고 만다. 그분은 오직 자신을 통해 실제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만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

(5)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대부분의 경우 헛된 것이 되며 그 희생은 거의 효과가 없게 된다. 인류 대다수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많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조차 우리 구주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고 말씀하셨다. 또한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개개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 아니다.

4.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 곧 모든 택자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들 외에는 아무도 위해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여 자신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엡 1:4-6).

사도행전 13 장 48 절, 로마서 4 장 25 절과 5 장 8 절, 고린도전서 15 장 3-4 절, 베드로전서 2 장 21 절, 24 절 등의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음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지 살펴보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희생 제물의 주된 의도는 택함 받은 세상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완전하고도 합당한 만족을 드림으로써, 진노하신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고 그분과 화해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 장 20 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가르치며, 고린도후서 5 장 19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고 말한다. 화목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을 메우고, 우리가 상실했던 하늘의 은총과 우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의도한 바였다(엡 2:16).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이 목적들을 충분히 이루었다.

여섯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자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명된다.

첫째, 여러 성경 구절이 이를 명백히 증언한다. 에베소서 5 장 2 절, 히브리서 7 장 26-27 절, 10 장 14 절, 9 장 13-14 절 등이 그 예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만족이 유효하며 완전하다는 증거다. 택자의 보증인으로서 그분은 죽음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그들의 모든 빚을 갚으셨다. 그분의 부활은 그 빛이 청산되었음을 세상에 엄숙히 공포한 사건이었다. 그분은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듯 공적인 판결을 통해 무덤에서 놓여나셨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논증이다. 만일 그분의 고난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책하기 위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권능이라는 강력한 결박 아래 있던 그분은 결코 죽음의 고통에서 풀려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화해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술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히 13:20).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러지기 전까지는 신적 능력이

죽음의 결박을 푸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진노하신 정의는 그분을 죽음에 내주었으나, 만족하신 정의는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켰다. 만일 그분이 희생으로 자기 백성의 빛을 모두 갚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영원히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만족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을 풀어주셨다.

셋째, 그분의 승천은 그 희생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충분했음을 증명한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배제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화해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우리 구주께서는 성령이 인간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이기게 할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바로 이 사실을 제시하신다. 요한복음 16 장 10 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यो”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실 때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고 죄인처럼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의 무죄하심을 명백히 드러내셨으며,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가 확보되었음을 보여주셨다. 이 의는 그것을 참되게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의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넷째, 화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탁월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만족이 완전함을 증명한다.

(1)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맺은 열매다. 그분의 죽음으로 율법의 의무, 곧 죄인을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묶어두던 의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 장 14 절은 말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민사상의 채무 증서를 무효화할 때 쓰는 표현이다.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조문은 십자가의 피로 폐지되었다. 그분의 거룩한 몸을 꿰뚫은 못과 창이 그 증서를 갈기갈기 찢음으로써, 율법의 정죄하는 권능이 제거되었음을 암시한다. 죄의 용서는 우리 구속의 핵심이며, 그 원인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증인이 빛을 갠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서 벗어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서 저주를 없애셨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신다.

(2)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은혜와 거룩함을 확보했다. 우리는 본래의 의와 거룩함을 상실했고, 당연히 그것을 박탈당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기까지 모든 은혜의 역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늘을 열고 성령을 내려오게 했다. 성령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주된 작용인(efficient cause)이다. 온 세상은 무덤 속 시체처럼 죄악 가운데 누워 그 참상과 부패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부패가 순결로 바뀌게 하셨다.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묶어두던 죄책에서 해방된 것은 실로 큰 은혜다. 그러나 우리 본성 전체를 감염시키고 오염시킨 죄의 독과 더러움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가 아니었을 것이다. 죄책만 제거되었다면 형벌에서는 벗어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통하는 역량을 갖추려면, 우리의 영혼이 씻기고 기능들이 새로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딤후 2:14).

(3) 믿는 자들이 천국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적으로 충분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인간이 원초적 거룩함과 복락에서 타락했을 때, 새 예루살렘의 문은 죄인에게 굳게 닫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임재에서 추방하고 본래의 거처인 낙원에서 쫓아내셨으며, 그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한 문들을 활짝 여시어,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하셨다(히 10:19-20). 이는 그분의 만족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없고 의로운 자의 특권인 영광과 불멸을 죄 많고 더러운 범죄자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을 복락의 성소에서 배제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째이자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가 행하고 겪으신 모든 일을 무한히 기뻐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들을 당신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점이다. 사도는 히브리서 5 장 9 절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요컨대,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칭의, 곧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영광스러운 특권까지 얻게 하는 풍성한 공로를 이룬다고 가르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이 의도된 모든 목적을 이루었음이 분명해진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켰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었다.

질문: 무엇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쁘게 받으시고, 인간에게 그토록 효력 있게 만들었는가?

답: 1. 그리스도의 위격(person)이 그분의 순종과 고난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했다. 그분은 우리 죄로 진노하신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셨고, 그 완전하심에 있어서도 성부만큼이나 참으로 무한하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성부와 동등하신 영원한 성자이셨다. 신성의 모든 총만이 육신으로 그분 안에 거하셨고, 그분은 “성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 그리스도의 위격은 희생 제물로 드러진 대상이신 성부의 위격만큼이나 존엄하고 영예로웠다. 신성의 위격들 사이에는 서열상 구별은 있을지언정, 우위나 존엄성의 차이는 없다. 바로 이 점이 그분의 고난에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부여했다. 그분의 신성은 고난을 당할 수 없었으나(impassable), 신적 위격을 지니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특히 그분의 피가 지닌 효력은 그분의 신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도가 골로새서 1 장 14 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선언하듯 말이다. 신성의 효력은 그분의 고뇌에 찬 모든 신음,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에 스며들었다. 사도행전 20 장 28 절에서 그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부르듯, 그분의 신음은 하나님의 신음이었고 그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행하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은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지고 효력을 갖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율법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 사이에 효력과 가치 면에서 무한한 차이가 발생한다. 사도는 이 점을 히브리서 9 장 13-14 절에서 놀라운 강조법으로 서술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신성과의 위격적 연합이 인간 본성이 겪은 고난에 위대한 존엄을 부여했다.

2. 그리스도 희생의 능력과 효력은 그분 위격의 무한한 거룩함과 순결함에서 흘러나왔다. 그분은 거룩하고, 해악이 없으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만큼 흠도 없으셨다. 그분의 인간 본성이 흠 없으셨다는 점은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 신성과 연합하셨다는 점은 그 희생이 ‘가치 있는’ 제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그분에게는 자연적으로 전가된 죄도 없었고, 인격적으로 내재한 죄도 없었다. 죄를 세상에 들여와 모든 후손에게 물려준 아담의 통상적인 출생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기에, 그분에게는 자연적으로 전가된 죄가 없었다. 그분은 모든 직무에서 거룩하셨으니,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으셨고 선지자로서 신실하셨으며, 삶과 죽음에서 거룩하셨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마음에는 무질서한 충동이나 욕망이 없었다. 만일 그분이 아주 작은 죄라도 오염되었다면,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3. 그분이 고난 중에 보이신 은혜로운 성품들은 그 희생을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빌립보서 2 장 8 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말한다. 그분의 순종은 평생에 걸쳐 기쁨으로 행해졌으며, 그 삶의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견뎌야 했을 진노의 모든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 곧 율법 아래 나서서 율법의 순종과 저주에 복종하는 몸을 기꺼이 취하셨다. 그분은 인간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시 40:6-7). 그분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성부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고난받으셨다. 성부께서 정하신 시간이 이르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다.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이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요 14:31). 우리를 성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야말로 그분 순종의 가장 의미 깊은 부분이었다. 이로써 그분의 희생은 지극히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또한, 그분의 놀라운

겸손은 순종과 더불어 그분이 높임 받으신 이유로 제시되는데, 이는 그 희생이 얼마나
 향기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빌 2:8). 영광의 주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 그토록 낮아지신
 것, 자신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가리고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위장하신 것, 하늘과 땅의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힘겨운 섬김과 더 깊은 굴욕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 접근할 수 없는 빛의
 보좌에서 내려와 악마와 인간의 분노와 광기에 자신을 노출시키시면서도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신 것, 치욕스러운 죽음을 감내하시고, 무한히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견디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 이 모든 것은 필설로 다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겸손의 행위였으니, 실로 그보다 더 낮아지실 수는 없었다. 겸손이 인간을 하나님께 그토록
 기쁘시게 하여 가장 큰 은총의 증표와 은사의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한다면, 하물며 성자의 이 고난이
 성부께 가장 기쁘게 받아들여져 가장 위대한 은총의 증표와 선물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이자 겸손의 행위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분이 고난
 중에 보이신 고귀한 믿음 또한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했다.

그분은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한 점의 불신이나 한 톨의 의심도
 품지 않으셨다. 잠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으나, 그 음산한 곳의 거주자들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절망에는 사로잡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부의 지극한 진노를 느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 진노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성부의 사랑을 확신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이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리라는 믿음을 지니셨다.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려 있으면서도 왕과 같이 행동하시며, 곁에 달린 강도에게 관용을 베풀어 바로 그날 그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신 것은 그 확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으신 그분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드심을 구한 그분의 신뢰는 이사야 50 장 5, 7,
 8 절에서 그분의 칭의의 근거로 함께 제시된다. 그분의 믿음의 빛은 아담의 불신에 맞서, 그분의
 위대한 겸손은 아담의 교만에 맞서 드러나야 했다. 그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를 영화롭게 했고, 그분의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그분의 신뢰와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영화롭게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희생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고, 사람에게는 효력 있는 제물이 되게 하였다.

4.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의 완전성은 그분이 겪으신 고난의 정도에 근거한다. 그분이 치르신 대가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피의 빛을 졌으므로, 그분의 생명이 희생 제물로 드러지지 않았다면 율법은 온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정의는 만족되지 못한 채로 남았을 것이다. 신적인 위격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근거가 된다. 이는 채무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보증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대신 갚아준 빛이기 때문과 같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리짐으로써 새 언약은 비준되었다. 요컨대, 우리 구주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 곧 택함 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했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모든 국면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이 겪은 고난에 온전한 가치를 부여하고 높은 값을 매겼다. 따라서 그 고난에서 비롯된 만족은 내재적인 가치를 지녔으며, 무한히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무한한 만족을 얻으셨다.

5. 그리스도의 희생이 향기롭고 효력이 있었던 것은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렸기 때문이다. 성부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행동과 고난의 주된 목적(스코푸스)이자 목표였으며, 그분은 이를 실제로 온전히 이루셨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영광이 그분 안에서 가장 밝은 광채로 나타났다(고후 4:6). 모든 속성이 그분 안에 모여 그분의 성육신뿐 아니라 특별히 그분의 희생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결합하여 서로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자비는 정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영화롭게 될 수 없었고, 정의는 그리스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명백히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은혜는 오직 중보자의 피의 강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왔다. 사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한다(히 9:22). 죄지는 피조물들이 영원히 신음하고 절규한다 해도,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 희생 제물의 심장에서 쏟아진 피의 홍수에서 드러난 정의만큼 완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귀와 인간에게 영원한 상흔이 새겨진다고 한들, 거기서 드러나는 죄의 가증함은 이 제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속성들의 영광은 신적 본성의 보석함에 갇힌 채 그 온전한 빛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속성들은 구원을 계획하는 데는 능동적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사람이나 천사에게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영혼에 가해진 일격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피조물의 눈앞에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정의, 능력, 지혜 등 모든 신적 속성이 영화롭게 되었다.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다채로운 지혜가 펼쳐졌다.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에서 결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빛났다. 이는 의사의 죽음으로 절망적인 병을 고치는 지혜,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선으로 바꾸는 지혜, 정의의 집행과 피 흘림을 통해 자비를 낳는 지혜이니,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의도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다(요 8:50). 그분은 사람들의 구원 안에서 성부의 영광을 구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승리를 성취한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

질문. 율법 아래서 드러지던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백성의 죄를 없애지 못했는가?

대답. 그렇다. 구약의 희생 제사들은 그 제도상 그림자에 불과했고 다른 실체 안에서 성취되도록 제정되었기에,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한때 그 제사들을 매우 열정적으로 옹호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 10:1, 4, 11).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영혼의 죄가 짐승의 피로 속죄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이성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토록 열등한 본성이 겪는 고난이 그보다 훨씬 우월한 본성이 저지른 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만 개의 강을 채울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몸의 만아들을 영혼의 죄에 대한 만족의 제물로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언하며 인류의 이성이 내리는 당연한 결론을 말했다(미 6:6-7). 이성적 존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 인간의 본성과 황소의 본성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죄를 지은 바로 그 본성이 고난을 받아 율법이 정한 형벌을 져야 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짐승의 피에 만족하셨다면, 그분의 엄정한 정의와 순결한 거룩함, 그리고 위대한 은혜는 결코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율법을 어긴 모든 자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시고 천둥과 번개, 불과 연기, 끔찍한 지진과 같은 두렵고도 엄숙한 의식으로 그 저주를 공포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생각할 때, 범법자를 대신하여 찢긴 짐승 몇 마리의 피를 받고 그 저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수만의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어 불의 율법을 선포하시고는, 그 모든 위협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토록 무서운 저주들이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이성 없고 무고한 피조물 몇몇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것처럼 장엄하고 무서운 선포 후에, 가련한 짐승 한 마리의 죽음과 같은 하찮은 보상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과 정의와 거룩함, 또는 죄의 사악하고 가증한 본성과 그 심각한 도발을 그토록 하찮게 여겨서, 어린 양이나 황소의 피로 전자는 만족되고 후자는 속죄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는 없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원하신다면, 그 제물은 우리가 거역한 그분의 위엄과 우리가 저지른 죄의 중대함에 상응해야 한다. 설령 일천 산의 모든 가축을 제물로 바치고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을 베어 그 제물을 태우는 땀감으로 삼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제물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위엄 사이에는 무한한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구약의 희생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를 속죄하기에 불충분했음을 보여준다. 사도가 말했듯이, 양심이 한 번 정결하게 되고 죄 사함을 얻은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히 10:18). 그러나 제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전 제물을 바칠 때와 동일한 상태에 있음을 명백히 암시한다. 사도는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이 제사들은 더 이상 드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배하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히 10:2-3). 만일 그 제물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러졌다면, 어찌하여 제단의 불은 영원히 타올라야 했으며, 어찌하여 죽은 짐승의 시체로 그 불을 계속 지펴야 했는가? 제물이 드러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 안에서는 죄의식이 일깨워졌고, 죄악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율법적 제도의 모든 국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으며 영혼의 죄책이 씻기지 않았음을 소리 높여 선포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가, 그날 밤이 되기 전에 같은 죄나 다른 죄를 지었다면, 새로운 속죄를 위해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다. 만일 그 제물에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다면, 제사는 그쳤을 것이고 반복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3. 희생 제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는 점 또한 그것이 죄를 없애기에 불충분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예물과 희생 제물, 곧 황소와 염소, 송아지와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는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온전히 예표하거나 상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 약을 써야만 병이 낫는다는 사실이 각 약의 불충분함을 드러내듯이, 율법 아래의 수많은 희생 제사와 정결 의식은 죄에 대한 완전하고 효력 있는 속죄 제물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함을 명백히 증거한다. 율법 제도 전체에서 가장 엄숙했던 대속죄일의 연례 제사조차 죄를 온전히 속죄하지 못했다면, 그보다 격이 낮은 제사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도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모든 제사의 불충분함을 논증한다(히 10 장).

4.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들이 그 자체의 효력으로 죄를 속죄하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다. 죄로 인해 진노하시고 모독당하신,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하시다. 따라서 그분을 만족시키려면 희생 제물 또한 무한해야 했다. 그러나 율법 아래의 어떤 제물도 그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그 제사들이 제정되었는가? 그것은 영혼의 죄를 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육체의 의식적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히브리서 9 장 13-14 절에서 보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할 뿐이다. 사도는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교하며, 전자는 오직 육체를 정화하고 후자는 양심을 정화한다고 보여준다. 그것들은

도덕적 죄책이 아니라, 죽은 시체나 나병 환자를 만져 부정해지는 것과 같은 의식상의 부정, 즉 영혼이 아닌 몸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제물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드러내셨고, 그것들이 죄로 인해 당신께 끼친 손해를 결코 보상할 수 없음을 밝히셨다. 이사야 66 장 1 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서 '집' 또는 '성전'은 모든 유대적 경륜, 곧 율법적 제사 전체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고 오랫동안 그분의 백성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셨다. 그것들은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도, 율법의 존엄을 옹호할 수도, 결코 죄를 없앨 수도 없었다(히 10: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거부하셨고, 그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폐지하고 무효화하셨다(히 7:18). 유대인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제사들을 드렸지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속죄되지 못했다.

5. 이 제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속죄하기에 불충분했다는 사실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더 탁월한 제사, 곧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상징하려던 제정 목적과 의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사도가 말하듯이 그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실체로서 모형적으로 나타냈다. 그것들이 지닌 효력은 무엇이든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예표하는 그분과의 모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켰고, 때가 차매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가 온전히 속죄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제물들을 그 자체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효력 있게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한에서만 기뻐하셨다(히 10:6-8).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율법 아래서 드러진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도, 인간의 죄를 없앨 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반론: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그분이, 택함 받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가장 죄 많은

자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 죄책은 두 가지, 곧 유책적 죄책(culpable guilt)과 형벌적 죄책(penal guilt)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죄를 저지른 자는 유책적 죄책 아래 있고,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의무를 지는 자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형벌적 죄책 아래 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형벌적 죄책 아래 계셨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를 자원하심으로써, 실제 죄인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받을 의무를 지게 되셨다. 이 점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율법의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제사들은 유책적 죄책이 없는 존재라도 형벌적 죄책 아래 있을 수 있으며, 직접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정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백성의 죄가 이 제물들에게 지워졌을 때, 그것들은 형벌적 죄책 아래 있었고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정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지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유책적 죄인은 아니었다.

질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사라면, 어떻게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신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가?

답변:

1.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만족시키셨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무런 만족 없이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하나는 그분의 신적 본질 혹은 본체에 관한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그분은 죄가 거스른 대상이자 그 죄에 대한 만족을 받으시는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그분의 위격과 경륜 혹은 직분에 관한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는데, 이는 그분이 자신의 인성(人性)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요 14:28)라고 말씀하셨다. 인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만족의 질료(matter)이며, 그분의 신성이 그 피를 존귀하게 하여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

3.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본성을 입으시고 죽음으로써 신성(Deity), 곧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만족을 드렸다는 사실은 이성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한쪽에 속한 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자기가 속한 편에 그 이해관계를 맡긴다면, 그는 화해를 위해 중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최고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데 반역한 신하들로 인해 함께 진노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아들이 중보자로 나서서 신하들을 아버지 군주의 은총에 복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이었던 죄에 대해서도 용서를 얻어내며, 그들을 자기 자신과도 화해시키는 것이다. 인간사로 신적인 일을 비유할 수 있는 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은 우리의 죄로 인해 동등하게 진노하셨다. 우리의 용서를 얻기 위해, 성자께서는 성부의 동의 아래 자신의 권리를 성부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와 성부 사이에서 중보자로 나서셨다. 이 과정에서 성부는 천국의 권리를 수호하는 분으로 간주된다.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뒤, 세상을 하나님, 즉 성부와 자신과 영원한 성령과 화해시키셨다. 이 경우 그분의 위격은 동일하지만, 그분의 자격(quality)은 다르다. 그분은 중보자로서 만족을 이루셨고, 하나님으로서 그 만족을 받으셨으니,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질문: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면, 그분은 그들이 받아 마땅했고 율법이 경고했던 바로 그 형벌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equivalent) 형벌을 받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경고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 마땅했던 바로 그 형벌을 받지 않으신 듯하다. 만일 그러하셨다면 영원한 죽음을 겪으셔야 했을 것이다. 율법이 경고한 것은 첫째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간적인 죽음은 우리를 위해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편 모두에 매우 학식 있고 경건한 저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모두 긍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견디신 형벌은 그 실체나 본질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해질 때 수반되는 부수적 상황들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 형벌을 실체나 본질의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그것은 죄인이 겪어야 했던 바로 그 형벌이었다. 인간은 타락으로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에게 형벌이 가해질 때 수반되는 부수적 상황들의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형벌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었다.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부수적 상황들이란 신성모독, 분노, 무력한 걱정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율법이 정한 바가 아니라 그들의 사악하고 비뚤어진 영에서 비롯된 우연적 결과일 뿐이다. 복되신 우리 구주께서는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셨고, 겪으실 수도 없었다. 그분 위격의 위대한 거룩함과 성결함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분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영원하며, 최종적인 절망과 죄책감으로 찌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다.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파먹는, 죽지 않는 벌레이다. 그러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유책 죄책이 없으셨으므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벌레를 겪지 않으셨다. 또한 그분의 시간적인 고난은 그분 위격의 무한한 존귀와 탁월함으로 인해 저주받은 자들의 영원한 형벌에 상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 따라서 그분은 절망에 빠지실 수 없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 거룩한 신앙의 근본 교리 중 하나인 이 중요한 조항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이 만족의 필연성을 생각하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죄의 본질, 그리고 율법의 제재가 반드시 요구하는 바다. 만일 죄가 단 한마디 말로 사라질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굳이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는 우회적인 길을 택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2. 이 만족의 진실성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짊어지셨고(사 53:5),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롬 5:6-7). 이는 모든 순교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전 1:13 참조).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영혼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책의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그분의 고난은 신적

위격의 고난이었기에, 시간적으로는 유한했으나 그 가치는 무한했다. 또한 그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셨다.

3. 이 만족의 완전성을 생각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완전한 만족을 이루셨다. 그분의 만족은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이는 고난받으신 그 위격의 탁월함(골 1:19)과 사도의 증언(앞서 인용한 히 10:14)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부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으심으로써 면책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한다. 그분의 백성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징계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한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두 번째로, 그 첫째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또 다른 목적인, 택함 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에 관해 논하겠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다룰 것이다.

- 1)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해의 본질을 설명하고,
- 2)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낳은 복된 열매이자 결과임을 증명하며,
- 3)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화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이겠다.

첫째, 화해의 본질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 이전의 우정과 호의가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한때 좋은 관계였으며, 서로 만나 사랑으로 교제하던 시절이 있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에서 막 지음 받았을 때, 그는 하늘의 친구요 총애받는 자였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의지에는 그 율법에 순종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균열도 없었으므로 화해가 필요하지 않았다.

2.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있음을 함축한다. 인간은 하늘과 누리던 원초적 호의와 우정의 상태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원수인 마귀와 한편이 되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소유권을 박탈하시고 낙원에서 쫓아내셨으며, 불타는 칼로 막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땅과 하늘 사이에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며, 세상에서 그분의 권익을 짓밟으려 애쓰고, 자신의 모든 힘과 재능, 그리고 받은 자비와 위로마저 불의의 무기로 삼아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나님 또한 그들의 적이 되셨다. 그분은 모든 죄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 정의와 권능이 그들을 겨누고 있으며, 그들은 그분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처한 상태이다.

3.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분께서 반역자들을 다시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리시며, 그들을 영원한 진노와 비참에 묶어 두었던 모든 죄책의 사슬을 끊어 주시는데 있다. 이 위대한 축복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고후 5:19)이다. 박탈되었던 권리가 회복되고, 그들은 이전의 우정과 호의의 관계로 다시 들어간다. 이 화해는 두 가지 차원, 즉 근본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으로 나뉜다. 화해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놓여 있다. 그분의 죽음은 화해를 이루어 낸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근거이다. 사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골 1:20)라고 말한다. 그리고 화해의 제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적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부여한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며 그들을 기꺼이 은혜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을 선포하신다. 사람들이 이 화해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진노를 거두시고 더 이상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신다.

둘째,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임을 증명하겠다. 이는 다음의 이유로 명백하다.

1. 이 위대한 진리는 성경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 사도행전 4 장 12 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 불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엄청난 위험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탁월함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를 배제하고 오직 그분만이 이 직분을 위해 단독으로 지명되었다는 배타성 때문이다. 그분 스스로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모든 예언과 약속과 예표가 가리켰던 유일한 분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분께만 고정되어 있으며, 그분의 직분이 영원하리라는 그분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시대의 모든 경륜을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엡 1:10).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한 준비였고 그분의 그림자였다.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뜻을 아들 안에서 요약하셨고, 인간과 맺으신 모든 관계가 결국 그분 안에서 귀결됨을 나타내 보이셨다.

2. 이 교리의 진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합당하게 준비된 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해야 했고, 한 위격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분 외에는 양편에 손을 얹을 수 있는 합당한 중재자가 없었다. 만일 그분이 단지 인간이셨다면, 침해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셨다면, 고난을 당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므로 두 가지 모두를 감당하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무한한 만족이 필요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죄책은 그대로 남았을 것이다. 그 위격의 무한한 존귀와 탁월함으로 인해 이러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분의 인성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부여하신 대상도 다른 어떤 이가 아니었다.

셋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에 필요한 일을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행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응보의 정의가 내리르는 포효를 잠재우셨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영혼 사이에 방패막이 되어주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사 53:4-5)라고 증언한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날카롭게 겨눠진 정의의 칼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다.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 백성 중 누구도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처와 마귀의 화살과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셨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기초를 놓기까지 멈추지 않으셨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외에 그 누구도 받지 않으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율법의 제사들은 제물을 바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히 10:1). 그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실제요 완성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들을 오직 성자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한에서만 의미 있게 여기셨다. 제사가 매일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화해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이 증거한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에게 부린 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를 효과적으로 이룬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신 제사였다.

셋째, 이제 화해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이겠다.

1. 그분은 앞서 길게 설명했듯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이 사역을 맡으셨다.

2.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화해를 사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흘러나올 길을 마련하셨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조항이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사 53:10).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만을 요구하셨다. 다른 제사들은 정의를 만족시키는 데는 전혀 무용했으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위대한 제사를 예표하기에는 적합했다. 인간을 위한 화해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되었다(롬 5:10; 엡 2:13; 골 1:21).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이는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고, 화해가 성취되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 자신이 겪어야 할 죽음이 더는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3. 그분은 자신의 효력 있는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실제적인 화해를 이루신다(히 7:25). 그분이 하늘에서 하시는 변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다. 이를 통해 그분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교섭하신다. 그분은 모든 신자를 손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청하신다. “아버지, 여기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을 반역하며 산 비참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율법을 어겼고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의 모든 빛을 제 피로 아버지의 정의에 온전히 지불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눈을 열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죄 많고 비참한지 보게 했습니다. 그의 반역에 대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의 의지를 꺾어 아버지의 은혜의 제안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연합시켜 제 신비한 몸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중생을 통해 제 것이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를 받으시어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죄에 대해 아버지의 정의가 만족되었으니,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은혜로이 받아주소서.”

요컨대, 택함 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분은 죄인들의 눈을 열어 죄와 위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꺾으시며, 복음이 제시하는 화평의 제안에 온전히 순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끄신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인격과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 장 6 절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기록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부분인 그분의 중보를 살피기에 앞서, 그분의 만족 교리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는 여기서 죄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악을 볼 수 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외에는 어떤 다른 제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것이다. 질병의 심각성은 그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의 효능과 강도로 알 수 있고,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사기 위해 지불된 값의 크기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피조물에게 가해졌던 가장 혹독한 심판보다도 훨씬 더 죄의 악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복되신 우리 구속주의 죽음의 신음은 죄의 끔찍한 본성을 드러내며, 그것이 무한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소리 높여 선포한다. 죄를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신음하며 피 흘려 죽으셔야 했다면, 그 죄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있겠는가! 이성적 행위자들이 어찌 감히 그토록 큰 악을, 그토록 거리낌 없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덧없고 스러지는 하찮은 것들을 위해 저지를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들이 진노하신 신의 진노와 복수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니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자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셨다면, 깊고 전반적으로 더럽혀진 죄인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영혼을 죽음에 이를 만큼 심히 괴롭게 했던 그 전능자의 진노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신성의 모든 능력으로 지탱하셨던 그리스도께서도 단 몇 시간밖에 견디기 힘드셨던 고통을, 그들이 영원히 견딜 수 있겠는가? 푸른 나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불타는 시련에 던져질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죄가 그토록 위험하고 치명적인 독이어서 한 방울만으로도 확실한 파멸을 가져오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해롭지 않은 양 물 마시듯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광기인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한 지옥의 모든 공포와 고통이 뒤따르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어리석음인가!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통은 그 극심함을 유지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대담하게 격노케 하는 것은 오직 비이성적인 불신과 무분별함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무한히 민감하게 느끼시며, 그들을 영원히 가장 무섭게 벌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2. 우리는 여기서 죄에 상응하는 만족(satisfaction)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엄격하고 가차 없는지를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다른 모든 증거는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비의 샘은 그 흐름을 멈추었고,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슬픔과 고난을 겪으시던 날에 단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자비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추운 밤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애통하게 부르짖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오, 하나님의 정의는 얼마나 확고하고 엄정한가! 죄인들이여, 그 정의가 지옥에서 당신들에게 임할 때 어찌하겠는가?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토록 부르짖으셨거늘, 당신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진노한 정의의 무서운 형벌 아래서 영원히 울부짖고 절규하게 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3. 우리는 여기서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갈망을 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 인간의 가장 명석한 지성으로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탄생부터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으신 고난은,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 같은 사랑의 본보기는 인간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여, 요한계시록 1 장 5-6 절의 말씀으로 노래하게 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확신을 준다. 인간의 본성적 양심은, 일단 죄를 통렬히 깨닫게 되면 죄책과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정의를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정의가 만족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죄를 깨달은 죄인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한다. 선지자는 그가 이렇게 묻는다고 묘사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성경은 어떤 이들이 우상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자기 자녀를 불살랐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무익했으며, 그들이 바친 가장 값비싼 제물도 그저 불을 위한 떨감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옛 죄를 속죄하기는커녕 그러한 행위로 새로운 죄를 저질렀고, 잔인한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타오르게 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을 칭의(justification)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길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 장 6-7, 9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도는 깨어난 양심의 고뇌와 불안을 묘사한다. 그는 받아 마땅한 심판을 피할 길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한다. 땅 위에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우리 시야에 있고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지성으로 발견할 수 없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속담처럼 ‘하늘 위나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한다. 이 비유는 율법에 의한 칭의와 복음에 의한 칭의라는 서로 다른 두 길에 적용된다. 율법은 불가능한 조건을 생명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 공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완전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소에 영접되지도,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불안해하며 고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와 그분 승천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로 말미암아,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분의 호의와 사랑에 대한 생생한 소망을 품게 된다. 사도는 히브리서 12 장 23 절에서 신자의 특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언급하며 이 사실을 표현한다.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죄인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지만,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그 두려움이 완화되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5.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희생 제물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만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유일한 제물이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이 제물에 의지해야 한다. 율법 아래서 백성에게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부려져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피가 부려져야 한다. 출애굽기 24 장 8 절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부리며”라고 기록한다. 이는 그들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오직 그 피를 통해서만 구속과 칭의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자의 직분이 이사야 52 장 15 절에서 “그가 많은 나라에 피를 부릴 것이라”고 묘사된 이유이다. 속죄 제물이

없다면, 우리의 죄책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어설프고 불완전하며 더러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정의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로운 진노를 멈추게 하고, 무한한 죄책을 속죄하며, 향기롭지 못한 우리의 섬김을 향기롭게 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뿐이다. 이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효능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피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부려져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그분의 정의의 칼날 앞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제안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비참함은 가중될 것이다.

오, 이 희생 제물이 도리어 그들을 고발하고 이 귀한 피가 하늘로부터 그들을 향해 복수를 부르짖는다면, 이는 사람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는가! 이는 마치 무죄한 아벨의 피가, 패역하고 비정한 형제의 잔혹함에 맞서 하늘에 복수를 부르짖었던 것과 같다.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에 가해진 모든 잘못과 해악에 대해 온전하고도 완전한 만족을 이루셨다. 고난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신성이 그 고난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서 채무를 온전히 변제받았다면, 법과 정의는 그가 원래의 채무자에게 다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증인의 행위와 법적 효력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으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자신을 대신 세우시고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순종과 만족으로 율법과 정의는 온전히 충족되었으므로 더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만족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얻어, 그것이 자신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라. 그리하면 정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징계와 교정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관의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징계이자 교정이다. 그 목적은 죄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 희생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너희를 대신한 보증인께서 이미 그 지극한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7.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모든 유익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자신이 대표한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따라서 정의는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도, 그분이 대신하신 이들에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이제 정의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 자비는 구원을 위해 간청하고, 온전히 만족된 정의는 그 주장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꺼이 그들을 죄책과 정죄에서 풀어주는 데 동의한다. 이리하여 예수를 믿는 죄인이 사면받는 그 자리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춘다.

8.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복음은 우리에게 정죄와 진노에서 벗어나는 틀림없는 길,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하는 확실한 길, 고뇌하는 양심을 위한 귀한 향유, 진노하신 하나님을 잠잠하게 하는 효과적인 치유책을 보여준다. 오, 모든 복이 담긴 복음과 그 귀한 계시를 소중히 여기라. 죄와 진노, 지옥과 정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속주, 곧 희생되신 구주를 영접하라. 그분의 십자가를, 그리고 여러분의 구속과 해방을 위해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부분은 자기 백성, 곧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주신 모든 이를 위한 중보 사역이다. 그분의 중보는 죄를 위해 율법과 정의에 만족을 이루신 것에 근거하며, 또한 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음을 명백히 전제하므로, 중보의 대상 역시 동일해야 한다. 앞서 논증했듯이, 그분은 오직 자신이 중보하는 이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자신의 귀한 피를 흘려주신 자들 외에는 누구를 위해서도 중보하지 않으신다. 이 주제를 더 깊이 논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 주님의 중보가 이루어진 여러 시기

2. 그분의 중보의 내용

3. 중보의 필연성

4. 한두 가지 추론

첫째, 우리 주님의 중보가 이루어진 시기들을 살펴보자. 이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으니, 곧 성육신 이전, 비하(卑下)의 상태에 계셨을 때, 그리고 지금의 승귀(昇歸)하신 상태이다.

1.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자신의 교회와 백성을 위해 중보하셨다. 이 직분은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연합한 후에 가장 탁월하게 수행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시기 전에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때에는 자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의 효력으로 개입하셨고, 지금은 그 약속의 실제적 이행의 효력으로 중보하신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이유로 그분은 ‘창세로부터 간구하는 보혜사(advocate)’이셨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로운 개입이 있었기에, 최초의 죄가 범해졌을 때 마땅히 임해야 할 형벌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분이 인간 본성을 취하시기 훨씬 전에 교회를 위해 간구하시는 모습을 본다(속 1:12). 또한 성도들은 그분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단 9:17). 이처럼 그분의 중보는 지상에 거하시기 수천 년 전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2. 그분은 비하와 수모의 상태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셨다. 히브리서 5 장 7 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한다. 이러한 중보 방식은 그분의 낮아지신 상태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것이었다.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분이셨지만, 그분의 중보는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조금도 덜하지 않았으니,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모든 택함 받은 자를 대신하여 얼마나 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보라(요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실로 그분은 가장 흑독한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상하시고 사람들에게 찢기시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불의 아래 신음하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간구도 잊지 않으셨다(눅 23:34).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의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많은 이들이 그분의 효력 있는 중보를 통해 은혜로운 용서를 받았다.

3. 그분은 지금 승귀하신 상태로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후, 지성소로 올라가시어 지상에서 시작하셨던 바로 그 소송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8 장 34 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둘째, 그리스도의 중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방식은, 지상에 계실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것과 같은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다. 그분은 영혼의 깊은 복종으로 무릎 꿇거나,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을 들지 않으신다. 그러한 겸손한 기도와 간구는 오직 ‘육체에 계실 때’, 즉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만 합당한 것이었다.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 그분, 곧 세상에서 입으셨던 모든 본성적 연약함과 궁핍의 흔적을 벗어 버리신 그분께는 그런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다.

2. 그렇다면 그분의 중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첫째, 그분은 자기 백성의 본성을 입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늘에 나타나신다. 지상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후,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들의 보혜사이자 중보자로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는 당신의 공로 있는 희생의 효력으로 그들에게 제기되는 모든 고발에 맞서시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을 청구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9 장 24 절은 “그리스도께서는 …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음이라”라고 말한다.

둘째, 자신의 죽음과 수난의 증표들을 자기 백성을 위한 강력한 탄원으로 제시하신다. 이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예표되었다. 대제사장은 피 없이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오직 그 피의 효력으로만 중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리스도 중보의 모든 능력과 효력은 그분의 공로 있는 고난에 근거한다. 죄를 위해 상하고 제물이 되신 그분의 영혼과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그분의 몸은 그 피의 고난에 대한 영원한 기념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지며, 영원히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2 장 24 절은 그분의 피에 중보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느니라”라고 기록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비록 입술의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말한다. 그 피는 아벨의 피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만, 그 목적은 다르다. 아벨의 피는 그것을 흘린 사악한 가인에 대한 복수를 부르짖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믿는 죄인을 위한 자비와 은혜를 간구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중보에 관해, 아민타스(Amyntas)의 유명한 일화는 탁월한 예시가 된다. 그의 형제 아이스퀼루스(Aeschylus)가 중죄로 고발되어 사형 선고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민타스가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웠고, 전투에서 한 팔을 잃을 만큼 공화국에 크게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형제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이 없는 팔을 들어 보였다. 이 모습이 재판관들을 깊이 감동시켜 즉시 형제를 무죄로 석방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요한계시록 5 장 6 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묘사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는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신 몸에 자신의 죽음과 희생의 흔적을 지니고 계심을 보여 준다. 그분이 지상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 받으신 상처들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보이며, 성부께서 그분이 간구하는 자비를 베푸시도록 설득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것이다.

셋째, 그분은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의 뜻과 소원을 성부께 제시하십니다. 이때 그 방식은 자비를 구하는 겸손하고 간청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의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분은 이제 자기 백성이 피 흘려 사신 모든 복을 온전히 소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수난 직전에 바로 이런 목적으로 간구하시는 모습을 앞서 인용한 요한복음 17 장 24 절에서 본다. 그분은 마치 성부와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시듯, 자신이 맡은 바 조건을 완수했음을 알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신의 공로에 대한 당연한 빛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에’, 이제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게 해달라고(사 53:10-11) 간구하십니다.

넷째, 자기 백성의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기도들이 수락되고 응답되도록 간구하십니다. 백성의 기도와 신앙 행위는 그 자체로 불순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분의 강력한 중보로 적용되는 보배로운 공로가 그것들을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이 능숙한 보혜사께서는 그 기도들을 하늘 법정의 절차에 맞는 형식과 언어로 다듬으시고, 그곳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신속히 상달되게 하신다. 이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와 함께 두 손 가득 향을 들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탁월하게 예표되었다. 그는 밖에서 제물을 드린 후, 휘장 밖에서 향을 만드는 향품을 두 손 가득 가져와 불이 가득 담긴 금향로에 넣고 그 연기로 속죄소를 덮어야 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자기 백성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상징한다.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향기로운 연기로 주 앞에 상달되게 하는 유일한 제단이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어 속죄소 앞에 상달되려면 그분의 공로라는 향이 더해져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8 장 3 절은 그분을 보좌 앞 금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손에 들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바치는 천사로 묘사한다. 그가 받은 많은 향으로 그 기도들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향’이란 그분의 막대한 공로와 강력한 중보의 능력을 뜻하며, 이는 그 백성의 모든 제물에 향기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한다.

다섯째, 자기 백성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에 응수하십니다. 신자는 여러 번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기소된 죄인처럼 끌려 나온다. 그곳에는 고발자인 사탄이 나타나 죄목을 들이밀고 율법의 의를

내세우며, 고발 내용에 따른 심판과 그 죄에 마땅한 저주의 집행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징벌을 요구하고, 양심은 지옥과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외치지 못한다.

신자가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 놓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그 고발에 응수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공로가 지닌 효력으로 믿는 죄인의 큰 죄에 맞서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의를 만족시키셨음을 근거로 율법의 모든 요구와 도전에 대항하신다. 그리하여 죄인이 받아 마땅한 정죄 판결은 무효가 되고, 이 능력 있는 중보자의 공로와 변호에 힘입어 사면의 판결이 선포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 장 33-34 절에서 이렇게 자랑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신자들을 고발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그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했지만, 언약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여 말씀하셨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속 3:1-2). 그들의 옷이 더러울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실 수 있다. 사탄이 늘 그들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시며 사탄을 침묵시키신다.

셋째, 우리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몇 가지 근거와 이유를 살펴보겠다.

1.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해 성부께 위임과 소명과 명령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42 장 6 절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이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는 결코 침입자나 찬탈자로서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임을 받아 시작하셨다. 주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고”(히 5:5). 주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듯, 제사장 직무의 모든 행위로 그를 부르셨다. 그를 부르셔서 자기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쏟아부어 침해된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피를 흘리게 하셨다. 한마디로,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하셨다.

2.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분께 주어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 장 6 절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라고 말한다. 성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선택받은 자들은 세 가지 면에서 성부의 소유였다. 첫째, 그들은 피조물이므로 그들의 생명과 존재가 성부에게서 비롯되었다. 둘째, 그들은 범죄자이므로 그들의 생명과 존재가 성부께 몰수되었다. 셋째, 그들은 선택받았으므로 그들의 삶과 존재가 성부를 위해 계획되었다. 이들이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은 은혜의 선택이 좌절되지 않고,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씨로 주어진 것은 그분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그 씨를 보시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시고, 자신의 힘과 피를 헛되이 쓰지 않으시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주어졌기에, 그분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9).

3.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성막 바깥 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일곱 번 뿌려야 했다. 또한 제단에서 숯불을 가득 담은 향로와 두 손 가득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덮게 해야 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께서도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후,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는 마치 속죄소를 덮는 구름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써 얻으신 구원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중보에, 그리고 그분의 중보가 제사장 직분에 달려 있음을 확인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4-25).

4.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들의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변호가 효력을 갖는 것은 그 희생의 가치와 능력에 달려 있다. 율법 아래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우리 제사장께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정의의 법정을 만족시키시기 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하실 수 없었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빛을 갠으셨기에,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그 상황을 주장하실 자격이 있다. 그분은 땅에서 완성하신 일을 하늘에서 끊임없이 제시하신다.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셨고, 그 피를 제시함으로써 중보하신다. 전자는 치료책을 마련한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5.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그 일이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을 통해 그분은 성부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목적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어떤 약정을 맺으셨는지 알려 주셨다. 그리고 승천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떠나 성부께로 가셔서, 그토록 귀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복들을 청구하신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죄가 우리를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셨고, 보혜사로서 하늘에 오르시어 그 보좌에서 그 답변을 변호하시며 모든 반론에 대응하신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분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히 9:24) 말한다.

6.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비할 데 없이 놀라운 사랑 때문이다. 그분은 인간이나 천사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높이나 깊이, 너비나 길이를 알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해한 사랑이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분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고, 급류처럼 쏟아지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기꺼이 겪게 했다. 이처럼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으니, 그 구속이 그들에게 적용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풍성한 시내처럼 보혈을 흘리셨으니, 그들을 위한 기도를 아끼실 리 만무하다.

7.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이유는 이 사랑의 섬김이야말로 그분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고, 때가 차매 그분은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 죽음과 부활을 거쳐 하늘에 들어가신 후에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의 소송을 변호하며,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복을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부의 뜻이며, 그분은 그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제 몇 가지 추론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우리를 위해 천사가 아닌, 사랑하는 독생자를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간청에 내맡겨졌다면, 가장 작은 죄라도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중보의 근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으며 거부되었을 것이다.

2. 우리의 구속주께서 베푸신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온갖 무가치한 모습과 그분을 향한 추악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자애로운 역할을 맡아주셨다. 우리의 심판관이신 분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소송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입과 소멸할 진노를 가지셨음에도, 그 진노의 팔을 스스로 묶고 그 허로 우리의 소송을 간청하시며 가장 풍성한 복을 얻어 주시니, 이 사실이 마땅히 우리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3.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하늘 법정에 친구를 두고 있다. 그분은 신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그들의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강력한 중보의 힘으로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신자들의 소송이 어떠하든, 그 결과에 대해 아무리 두려워하든, 강력한 중보자의 힘을 통해 모든 것이 마침내 바로잡힐 것이다.

4.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거나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구속주께서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죄도, 사탄의 모든 유혹도, 세상의 위협이나 미혹도 결코

그들을 견고함에서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들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들이 안전하게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의 죄책을 속하는 근거이자 영생에 대한 권리를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라. 또한 그분을 성부 앞의 보혜사로 삼아, 현세와 영원에 필요한 모든 복을 얻으라.

그리스도의 왕직

시편 2:6—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신약은 이 시편의 여러 구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명백히 적용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바로 그분이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언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적 왕국인 시온의 왕으로 임명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단언한다. 이 말씀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

1. 그분의 직분: 그분은 왕이시며, 모든 왕권과 왕의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이 이름은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되어 있다(계 19:16).

2. 그분의 왕국: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은 거룩한 산 시온이다. 시온은 복음 교회의 탁월한 모형이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그 위에 세워졌기에 거룩하다 불린다.

3. 이 왕국에 대한 그분의 권리: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신다. 성부께서 그분을 그 직분에 세우시고, 신인(神人)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어졌다.

4. 모든 반대와 파괴 시도에 맞서는 이 왕국의 견고함: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말씀은, 비록 원수들이 울부짖고 분노하며 그 왕국의 건설과 확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계략은 실패하고 모든 속의는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뜻한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의 보좌를 지키리라.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교리적 명제는 다음과 같다.

교리: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 교리를 상론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보이고자 한다.

- I.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
- II.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종류의 왕국인지
- III. 그분의 왕직의 활동들
- IV. 이 왕의 속성들
- V.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추론

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보이겠다. 다음의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1. 그분은 구약에서 이러한 속성을 지닌 분으로 예언되었다. 늙은 야곱은 임종 시에 그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구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사 11:1-3).

2. 그분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칭호로 자기 백성에게 약속되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6-7).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눅 9:9).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 5:2). 그분은 탁월한 의미에서 왕으로 불린다. “왕이 나를 그의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아 1:4). “나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겔 34:24).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 선포되었다(눅 1:32-33).

“그가 장차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곧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로 인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 불리신다(계 17:14).

3. 그분은 왕의 모든 표지를 갖추셨다. 그분에게는 칼이 있다. 시편 45 편 3 절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라고 말한다.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분이 세상에서 자기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보존하고 확장하시는 위대한 도구이다. 또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인 규(sceptre)가 있다. 히브리서 1 장 8 절은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의 영을 나타내심을 의미한다. 곧 그분은 말씀과 규례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응하게 하신다. 그분에게는 관이 있다. 요한계시록 6 장 2 절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하며, 아가서 3 장 11 절은 혼인 잔치날 그의 어머니가 씌워 준 관에 대해 언급한다. 그분에게는 문장(紋章) 또는 군기(coat of arms)가 있다. 그분은 사자를 문장으로 사용하시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리신다(계 5:5). 이는 그분이 위대한 정복자이자 승리하는 왕이 되실 것을 시사한다. 그분에게는 보좌가 있다. 히브리서 1 장 8 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라고 말한다. 그분에게는 통치할 백성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들이다(시 2:9). “그의 다스리심이 만유에 미치시도다”(시 103:19). 하늘의 모든 천사는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히 1:6). 특히 그분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고, 그분은 그 왕권을 하늘로부터 직접 보유하신다. 그분은 모든 백성이 순종해야 할 법을 제정하신다. 그분의 법은 그분의 말씀에 담겨 있으며,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

4. 그분은 이 진리를 자신의 보혈로 인치셨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대답하셨다. 이 일로 인해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기록되었다(딤펴전 6:13).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은 분명하다. 참으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왕 위에 뛰어나시므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불리신다. 실로 그분은 그러셔야만 한다.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이 위대한 왕으로부터 직접 왕관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은 보좌,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셨으므로 그들 모두를 무한히 능가하신다.

II. 이제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 곧 그것이 어떤 종류의 왕국인지 보이겠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종류의 왕국을 가지신다.

1. 본질적 왕국이다. 그분은 본성상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주님이요 왕이시다. 이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면에서 성부와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하늘과 땅, 나아가 지옥 자체에까지 미치는 보편적 제국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온 세상의 유일한 군주이시며, 땅의 모든 군주와 권세자들은 그분 아래서 그분을 위해 다스려야 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사도가 칭하듯이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딤펴전 6:15).

2. 경륜적 또는 중보적 왕국이다. 왕국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속하며, 파생적으로는 신인(神人)이시며 중보자로서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명과 제정으로 왕이 되셨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 장 22 절은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말한다. 그분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땅의 모든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맨 끝 경계까지 다스리신다. 이 왕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다(요 17:2). 만물이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그분이 명령의 말씀을 내리실 때 그분의 뜻을 기꺼이 이를 준비가 되어 있다. 교회는 그분의 독특하고 특별한 왕국이다. 하나님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2).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래서 그분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라고 말씀하신다. 이 왕국의 왕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장엄함, 찬란한 행렬, 무장

호위대, 혹은 웅장한 궁정에 둘러싸여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왕국 본질에 부합하는 영적인 장엄함 가운데 나타나셨다(앞서 인용한 속 9:9). 그분의 보좌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시 110:1). 그분의 규는 영적인 것으로, 곧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시온에서 나오는 그분의 능력의 지팡이이며, 그분은 이것을 도구로 삼아 주의 권능의 날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신다(시 110:2-3). 이사야 2 장 3 절과 비교해 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왕국의 백성은 영적인 사람들,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며, 진리의 말씀,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다(요 1:12). 그 통치 방식은 영적이어서 사람의 몸이나 재산이 아닌 양심에 이른다.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후 10:4). 그 법은 영적이어서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치며, 그 왕국이 주는 유익 또한 영적이니, 곧 ‘의와 평강과 희락’ 등이다. 이 왕국에 대한 그분의 통치 집행은 외적이기도 하고 내적이기도 하다.

1. 그것은 외적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더 일반적인 것과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뉜다. (1) 더 일반적인 것은 그분의 섭리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분은 중보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섭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시어, 자기 백성의 특별한 유익과 이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정돈하고 결정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스겔 1 장에는 신적 섭리의 놀라운 설계도가 제시된다. 거기서 우리는 이 아래 세상의 모든 바퀴들, 곧 움직임과 회전이 그 안에 있는 영에 의해 어떻게 인도되고 지시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26 절에서 이 모든 것은 최상의 원인으로 귀결된다. 거기서 우리는 보좌에 앉아 만물의 통치를 위한 명령을 내리시는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2) 더 구체적인 것은 그분이 교회 안에 법과 규례와 직분자들을 세우시어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물의를 일으킨 범법자들에게 권징을 시행하시는 일이다.

2. 그것은 내적이며, 그분의 백성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분은 권능의 날에 그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7 장 21 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좌정하시어 그의 왕의 규를 휘두르신다. 이 점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III. 그리스도의 왕직 행사는 다음의 항목들로 요약할 수 있다. 곧 죄인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는 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 그들을 방어하고 보호하시는 일, 자신과 그들의 원수를 제지하고 정복하시는 일이다. 이 항목들을 순서대로 논하겠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복종시키시는 방식으로 왕직을 수행하신다. 그분은 권능의 날에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권위와 규에 복종하게 하시며(시 110:3), 그리하여 그들을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을 살펴보자.

1. 종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왕직이 지닌 주된 목적은, 땅의 왕국들 한복판에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우고(행 15:14) 세상 왕들의 백성을 거룩하신 종보자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 왕국 안에 영적 왕국이 있음을 허용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2.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이 왕국을 사셨기에(행 20:28)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다. 그분은 정복할 권리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선물과 자신의 값 주고 사심에 근거한 권리를 가지고 오신다. 이 왕국을 소유하시기까지 그분은 피 흘리는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셔야 했으며, 자신의 보혈이라는 막대한 값으로 모든 백성을 사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리는 폐기될 수 없다.

3. 우리 주님께서 이 왕국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셨음에도, 그분의 백성은 어둠의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께 공공연히 반역하고 있다. 디도서 3 장 3 절에 기록된 바가 바로 그들의 보편적 특성이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들은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 정복되기까지는 결코 그분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오직 칼날의 일격과, 친히 부활하실 때 발휘되었던 바로 그 능력의 행사를 통해서만 백성을 얻으신다.

4.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권능으로 그들을 정복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기꺼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자신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그들 자신의 비천한 정욕에 대한 순종을 끊어 버리게 하신다. 또한 그들이 즐거이 그분께 순종하는 멍에를 메고, 이사야 26 장 13 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하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5.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는 그분의 말씀과 영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죄와 반역을 효과적으로 깨닫고 그분께 굴복하게 된다. 말씀은 그분의 권능의 지팡이로서, 그분은 이것으로 못 민족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셨다. 초대 교회 시대에 그분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제국을 뒤엎고, 이교의 신탁을 잠잠하게 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셨다. 그러나 말씀이 영 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겉모습만 백성인 이들이 많다. 이들은 충성을 가장할 뿐, 실제로는 사탄의 백성이며 시온의 왕께 복종하는 척할 따름이다. 하지만 영이 말씀과 함께 임하는 곳에서는 마음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며(고후 10:4),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자신의 왕국을 소유하신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써 왕직을 수행하신다. 어떤 왕국도 통치 체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왕국 역시 질서 있는 왕국임에 틀림없다. 그분 자신이 지고한 머리요 군주로서 친히 그 왕국을 통치하신다. 이제 그 통치의 방식을 살펴보자.

1. 교회는 그 머리를 하늘에 둔, 지상의 가시적인 사회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외적으로 다스리신다.

(1) 그분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모든 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정해주신다. 이사야 33 장 22 절은 “여호와와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왕국의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율법의 모든 권위와 효력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비롯되며, 교회나 그 어떤 인간 단체로부터도 나오지 않는다. 그 누구도 이 위대한 왕의 율법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권한이 없다.

(2) 그분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손에 이 통치권을 맡기신다. 직분자들은 자신의 행정에 대해 그리스도께 책임을 져야 하며,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에게서 권위를 부여받는다. 이 직분자들은 교황도 고위 성직자도 아니니, 이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세속 통치자도 아니다. 세속 통치자는 그 자격만으로는 교회의 일원조차 되지 못한다.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의 대의에 적대적인 통치자들만 있던 시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통치 체제를 세우셨다. 이는 고린도전서 12 장 28 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직분자들은 바로 설교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이다. 디모데전서 5 장 17 절에서 사도가 한 말이 이를 명확히 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3) 그분은 권징과 책벌을 주셔서 무질서한 자들을 제어하고 물의를 일으킨 자들을 견책하며 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신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이에 복종해야 한다. 그분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마태복음 18 장 17-18 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율법은 오직 그분께만 열려 있는 내면의 인간에게까지 미치므로, 그분은 자기 백성을 내적으로도 다스리신다.

(1) 히브리서 8 장 10 절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기록하신다. 그분은 내적인 증거를 통해 그들의 의무를 분명히 보여 주시고, 자신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만드신다. 그리하여 이사야 30 장 21 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 그분은 영혼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듯(행 20:22), 자신의 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순종으로 이끄시고 주관하신다.

(3) 여기에 그분의 손에서 직접 나오는 은밀한 상벌을 덧붙일 수 있다. 그분은 백성이 의무의 길을 걸을 때 영적인 위로와 영혼의 잔치를 베푸시지만, 은밀한 잘못에 대해서도 교정의 채찍을 가하신다. 이를 통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왕이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분은 버가모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계 3:19).

셋째,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언제나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위협한다. 이 적들은 마귀와 육체와 세상과 죽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듯 이 모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

1. 그분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온갖 교활하고 맹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속 자체를 보존하신다. 이것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이치이다. 그분은 교회를 두고 이사야 27 장 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와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또한 그분은 개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어, 그들이 결코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2. 그분은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버팀목과 도움을 주시며, 죽음의 순간에도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사야 63 장 9 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또한 고린도전서 10 장 13 절은 말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를 위해 그분은 천사들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 1:14). 나아가 그분은 가장 악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역에 동원하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 장 16 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입에서 토해 낸 강물을 삼켜 버린 것이 그 예이다.

넷째, 그리스도는 당신의 적들과 당신 백성의 적들을 제어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적들의 힘이 백성을 괴롭힐 만큼은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 두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시 76:10).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당신 백성의 모든 내외적 원수들을 쇠사슬로 묶어 두셨다. 그들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허용 없이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적들과 당신 백성의 적들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이 정복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첫째는 그분이 지금 적들의 권세를 부분적으로 제거하시는 정복이다. 이로써 마귀는 이미 정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처럼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노예의 멍에 아래 둘 수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마귀와 육체는 회심의 은혜가 임하는 날 정복된다. 이때 이 원수들의 권세는 깨어지고, 포로 되었던 자들은 과거에 붙들려 있던 폭정과 속박에서 해방된다.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교회가 평온을 누릴 때 정복된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속 2:5). 그리고 죽음은 그 쏘는 것이 제거될 때 정복되는데, 이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2) 둘째는 마지막 날에 있을 완전한 정복이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하나의 영광스러운 회중으로 모아,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된 처소로 옮기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때 그분 자신과 그분 백성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고전 15:25). 그때 죽음과 지옥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계 20:14), 마귀와 그의 모든 종들은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위대한 왕의 영광스러운 정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며,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찬송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3).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 물론 현재와 같은 통치 방식은 그치고, 그분은 완성되고 온전해진 왕국을 성부께 바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교회의 왕이요 머리오 신랑으로 남아 계실 것이며(계 19:7 참조), 하나님과 성도들을 잇는 영원한 연합의 끈이 되실 것이다.

IV. 이제 시온의 왕이 지닌 몇 가지 속성 혹은 특성을 살펴보자.

1. 그분은 유구하고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기원을 지닌 왕이시다. 그분은 성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근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또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2. 그분은 절대적인 왕이시다. 자기 백성을 위해 율법을 제정하시지만, 자신은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으신다. 그분의 뜻이 곧 율법이며, 하늘과 땅에서 당신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일을 아무런 제재 없이 행하신다. 그분의 통치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그 누구도 그분께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여쭙 자가 누구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절대 군주이시기는 하나, 그분의 통치는 결코 폭압적이지 않으며, 의와 공의와 거룩이라는 영원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그분은 지혜로운 왕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실로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백성이 휘말릴 수 있는 온갖 위험과 난관의 미로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다. 그분은 “지혜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므로, “그들이 다닐 때에 그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잠 4:11-12).

4. 그리스도는 지극히 강력한 왕이시다. 그분은 들소보다 더 큰 힘을 지니셨으며, 실로 권능으로 충만한 팔을 가지셨다. 전쟁에 능하신 강한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귀나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무한한 능력을 갖추셨다.

실로 그 힘과 권능이 어찌나 크지, 그 진노의 입김 한 번에 모든 원수가 바람 앞의 겨처럼 흩날린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전쟁에서 가시와 찔레를 내 앞에 두겠느냐 내가 그것들을 헤치고 나아가 한꺼번에 불사르리라”(사 27:4).

5.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왕이시다. “의롭고 정직하시도다.” 비록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쌀지라도,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시 97:2). 따라서 그분의 통치는 높고 낮은 자, 부하고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시행된다. 가난한 자의 비천함도 존귀한 자의 명예와 위대함도, 그분이 완전한 정의라는 불변의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을 더 존중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었음이라”(욘 34:19).

6. 그리스도는 지극히 자비로운 왕이시다. 자비는 그분 본성의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이며, 그분은 사람들이 그 자비의 선한 결과를 체험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주, 주 하나님이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라” 선포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일부러 슬프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으시며, 가장 완고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고통당하고, 상심하고, 낙담한 자기 백성을 매우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신다.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에 친히 함께 고난당하시니, 그들을 건드리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7. 그리스도는 지극히 온유하고 인내하시는 왕이시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처럼 가장 큰 친절을 베푸는 바로 그 백성에게서 그런 모욕과 경멸을 받고도 견뎌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서 이처럼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내 황폐해졌을 것이다. “그들은 배교하기를 고집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부르건만 아무도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않는도다”(호 11:7). 그분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배교한 자녀들아,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겪고서도 이 공의롭고 질투하시는 왕이 그들을 향해 친절의 생각을 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

8. 그리스도는 지극히 아름다운 왕이시다. 그 영광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눈부시다. 피조된 모든 아름다움을 다 합쳐도 그분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니, 그분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며 진실로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9. 그리스도는 지극히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가장 비천한 사람과도 사귀기를 꺼리지 않으시므로, 거지나 왕자나 똑같이 환영받는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분께는 모두 같으며, 재 더미 위의 옴이나 보좌 위의 다윗이나 똑같이 주목하신다. 이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사 66:1-2).

10. 그리스도는 지극히 부요하고 풍성한 왕이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며,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존귀와 재물이 그분께 있고, 영속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분께 충성되고 신실한 백성은 좋은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누릴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왕의 측량할 수 없는 보물과 무한한 부요함은 지상의 모든 사역자나 하늘의 모든 천사라도 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들이 두 팔로 하늘을 품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칠 수 있겠는가? 저울로 산들을 달고, 천칭으로 언덕들의 무게를 잴 수 있겠는가? 설령 이 모든 일, 아니 그 천 배의 일을 할 수 있다 해도, 우리 왕의 자산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은 은혜와 영광 어느 것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11. 그분은 불멸의 영원한 왕이시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이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 102:26-27).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우며 부유한 왕들도 죽어서 백성을 온갖 곤경에 빠뜨리지만, 이 영광의 왕은 영원히 살아 계시며, 영원무궁토록 정의와 자비와 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V. 이제 이 주제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자.

1. 세상의 왕들은 자기 영토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시기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 이 세상 나라들과는 그 본질이 전혀 다르며, 지상 군주의 정당한 권리나 특권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왕국이 세상 왕들의 눈엣가시가 되어, 그들이 권력을 동원해 이를 억압하고 짓누르려 하니 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 교황 수위권이나, 모든 인물과 사건에 대한 국가 통치자의 최고 권위를 주장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담한 신성모독이요, 그분의 왕관과 존엄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그분께 대한 심각한 반역이다. 그분은 자기 왕관의 보석이 도둑맞아 지상의 어떤 권력자의 머리를 장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런 자에게는 가장 혹독한 진노를 보이실 것이다.

3. 교회에는 세속 정부와 구별되며 그로부터 독립된 치리권이 있으며, 이는 교회 직분자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리회를 소집하고, 이 왕의 말씀과 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며, 그의 이름으로 회를 파하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금식일과 감사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범법자들을 징계하고, 매고 푸는 권세를 행사하는 등, 오직 영적인 방식으로만 이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권한을 갖는다. 누구든지 이러한 치리 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권한 중 일부라도 찬탈하려 든다면, 이는 그만큼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권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4.

교회의 치리권은 세속 권력이든 교회 권력이든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이 치리권을 위임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리와 특권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권한이 없다. 만일 그리한다면 이는 맡은 직무에 불충한 것이며, 훗날 그 행위로 인해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5.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정하지 않으신 예배 형식을 교회 안에 제정할 권한이 없다. 그분은 교회의 유일한 입법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규범을 친히 말씀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닌 의식과 예법을 만드는 것은 그분의 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그 모든 예식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것 외에 성도의 교제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할 조건을 감히 만드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는 시온의 왕에 대한 심각한 반역 행위이다.

6. 그리스도 왕국의 진리는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 이 진리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의무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기에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잃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혁명' 이전 박해 시대에 주님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의 근거였다. 그리스도 왕국의 특권을 향한 그들의 열렬하고도 확고한 충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7. 교회는 땅에서 오든 지옥에서 오든, 온갖 폭풍우를 이겨 낼 것이다.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음모와 계략은 결국 좌절될 것이다. 교회의 왕께서 살아 계셔서,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원수들이 패망하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질 때, 그분의 머리 위에서 왕관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이다.

8. 아무리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서 난파선처럼 위태로워도 마침내 항구에 다다를 것이다. 안팎의 온갖 시련과 타락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은혜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마음에 심긴 은혜의 씨앗은 자라나 거룩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한 백성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다.

9. 그리스도의 집, 곧 교회의 규례와 권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에 꾸준히 참여하기를 게을리하고, 수치스럽고 남을 실족케 하는 행위로 인한 권징과 견책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여,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는 시온의 왕의 원수이며, 너희 행위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 반역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분의 원수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0. 보라, 성도들이여.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정욕과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와 전쟁을 치르는 너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너희의 전능하신 왕이시다. 그분은 어떤 곤경에서도 너희를 도우실 무한한 능력을 지니셨다. 날마다 그분을 너희 왕으로 모시고, 생명과 힘과 보호와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고 신뢰하라.

11.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요, 사탄의 포로이며, 자기 정욕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여, 왕이신 예수의 홀과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권고를 받지 않겠는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그분의 복된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

(1) 그분의 위격이 지닌 위대한 영광과 존엄을 생각하라. 그분은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요, 사람과 천사들의 경이이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군주라 할지라도 그분과 비교하면 땅의 벌레나 공중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의 영광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피조된 모든 탁월함은 그 빛에 가려 자취를 감춘다.

(2) 그분은 너희 영혼을 다스릴 가장 정당한 권리를 가지셨다. 마귀와 너희의 사악한 정욕은 모두 찬탈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너희의 합법적인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너희에 대한 본래적 권리를, 중보자로서 파생적 권리를 지니신다. 성부께서 주신 권한으로 그분은 의심의 여지 없는 소유권을 가지셨다(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한 자신의 공로와 피 값으로 사신 권리도 있으시다(롬 14: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희는 그분의 것이다. 너희는 전적으로 그분의 처분에 달려 있다. 그분은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너희 위에 가지고 계신다. 너희의 동의나 자원이 그분의 소유권에 무엇을 더 보태지는 못하지만, 만일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너희 죄를 무섭게 가중시킬 뿐이다.

(3) 그분께 복종하기 전까지 너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보라. 너희는 마귀의 비참한 속박 아래 있으며, 어둠의 군주에게 매인 노예이다. 지금 너희 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로 그 영이 다스리고 있다. 너희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마침내 더는 비참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 없이, 언약의 약속 없이, 평안 없이, 죄 사함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교제도 천국에 대한 권리도 없다. 너희는 추악한 정욕의 노예이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이미 정죄를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너희의 통치자요 인도자였던 자가 오는 세상에서는 너희의 동반자이자 너희를 고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 두려운 상태여! 어찌 쇠사슬에 묶인 채 평안히 잠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문 앞에 서 계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자를

향해 감옥 창살 너머로 한숨짓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군기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 그 깃발 아래로 달려가 그분의 신실한 백성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지 않겠는가?

(4)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가장 큰 영광이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제국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등으로 불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자,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과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이로써 그들은 위대한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장 높은 영광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5) 그분의 다스림은 가장 감미롭고 즐겁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의 왕관보다 낫다. 그러니 그분의 평안한 홀에 복종하라.

(6)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할 때 따르는 위대한 행복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사람이 갈망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자비와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사탄의 종살이와 죄의 속박, 율법의 저주, 장차 임할 진노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이 왕께 복종하라.

(7) 너희가 죄와 사탄, 그리고 이전까지 너희를 지배하던 모든 정욕과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너희 영혼을 다스리시도록 진심으로 동의할 때, 너희는 그분의 머리에 관을
씩워 드리는 것이요, 그 피 흘리신 죽음과 고난에 보답하는 것이다.

(8)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섭리의 목적이다. 복음의 화살통에 담긴 모든 화살은 이
과녁을 겨누고 있으며, 모든 복된 선이 모이는 중심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복종하여,
가련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헛되지 않게 하라.

(9) 너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지 않는 한, 그분에게서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그분의 다른 모든 직분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왕직을 통해서이다. 그분이 피로 사신 모든 복과 유익은 이 길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분은 왕의 권능으로 신자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이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이끄신다. 너희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에게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그분을 선지자와 제사장뿐 아니라 주님으로도 영접해야 한다.

(10) 마지막으로, 만일 너희가 그분 앞에 몸을 낮추어 절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희를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으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칙령을 정하셨다. 만일 즐거이 자원하여 꿇지 않으면, 강제로 억압을 받아 꿇게 될 것이다. 그분은 철장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땅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라도 그 철장으로 부수실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고를 시편 2 편 10-12 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